

| 16일 Market Index | |
|---------------------|--------------------|
| 코스피 | 코스닥 |
| 2610.36 (-23.09) | 765.79 (-8.02) |
| 금리 (연·9월) | 환율 (원·달러) |
| 2.880 (-0.026) | 1362.90 (+1.60) |

위기의 삼성, '차세대 HBM4'로 반도체 리더십 사수

엔비디아 HBM4 탑재 계획 발표
삼성전자, 반도체 위기 타개 위해
고수익 '6세대 HBM4' 개발 사활
조직혁신 통해 기술 경쟁력 강화

삼성전자가 반도체 리더십 사수를 위해 내년에 첫 선을 보일 고대역폭메모리(HBM) 6세대 'HBM4'를 반전 카드로 삼고, 개발에 주력할 방침이다. HBM은 해마다 신제품이 나오는 만큼 빅테크들은 매년 최신 HBM을 찾고, 내년에는 HBM4가 시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3분기 반도체(DS) 부문 실적 악화에 대한 사과문을 내고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드러냈다. 삼성전자는 위기 타개를 위해 고수익 제품인 HBM의 최대 수요자 엔비디아(NVIDIA)가 HBM4 탑재 모델 계획을 밝힌 데 따라 신속한 HBM4 개발에 사활을 건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낮은 조직문화 쇄신과 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시스템LSI까지 아우른 사업 범위 정리에 돌입했다.

16일 반도체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 내에서 희망퇴직과 함께 사업부 내 인력 이동이 계속되고 있다. 경쟁사보다 앞선 6세대 HBM 개발이 목표다.

올해 2월 삼성전자는 업계 최초로 HBM3E 12단을 선보이고 올해 3분기 중

엔비디아(NVIDIA) 납품 및 양산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분기 HBM3E 8단을 3분기 중 양산하겠다고 밝힌 후 추가적인 메시지가 나오지 않으면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퀵(성능) 테스트를 못 넘었다는 게 기정사실화됐다. 현재 경쟁사인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엔비디아에 HBM3E 8단을 납품 중이다. 더불어 두 기업은 9월 HBM3E 12단 양산도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HBM3E가 아닌, HBM4 개발을 통해 전세역전을 노리고 있다. 엔비디아가 내년 출시할 주요 제품에 HBM4 적용을 예고한 탓이다. 엔비디아는 내년 출시할 차세대 최고 프리미엄 모델 GPU '루빈'에 HBM4 8개, 2027년 출시할 '루빈 울트라'에 HBM4 12개 탑재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현 최고 사양 모델인 블랙웰 울트라에만 HBM3E 12단을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준프리미엄 모델인 B200A에 HBM3E 12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엔비디아가 계획한 칩셋이 기존 블랙웰의 HBM3E 보다 더 많은 HBM을 요구하는 만큼 선제적인 HBM4 개발이 현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키워드라는 판단이다.

삼성전자는 안팎에서 제기되는 조직에 관한 다양한 비판을 수용하며 기술 리더십 확보를 위한 개발 토대 마련을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는 매년 연말 인사를 내고



한미일 등 11개국, 대북제재 감시기구 출범
북한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독립기구가 출범한다. 한·미·일 등 11개국 이 기구에 참여한다. 지난 4월말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의 활동이 종료되면서 감시 기구의 공백이 생긴 지 약 6개월 만이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가운데)이 1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키노 마사타카 일 외무성 사무차관과 함께 대북제재관련 대외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조직 개편을 진행했으나 이미 일부 조직은 인사 이동과 개편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고령화 한 조직 쇄신과 다각화 하는 과정에서 집중도가 떨어진 사업 정리도 진행한다.

(2면에 계속)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금리 내리자 가계부채 '경고등' 전세·정책대출 DSR규제 검토

은행 가계대출 잔액 5.7억 증가
주택거래 증가한 8월분 미반영

◆ 금리인하, 집값·가계부채 상승 부추겨

한국은행의 통화긴축 기조가 3년 2개월만에 완화(금리인하) 쪽으로 전환했지만 가계부채 측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 매매 거래 이후 2~3개월 시차를 두고 실행되는 만큼 매매가 급격히 증가한 8월분이 반영돼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을 보면 5월 3만9000호→6월 4만3000호→7월 4만8000호→8월 4만2000호로 늘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량도 5월 1만8000호→6월 2만3000호→7월 2만7000호→8월 2만2000호로 증가했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길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앞서 한은은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연 3.25%로 0.25%포인트(p) 인하했다. 가계부채 불씨가 완전히 잡혔다고 보기엔 이른 시점에 기준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 가계부채 증가세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보다 0.10% 상승해 4주 연속 상승세가 둔화했다. (4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이창용 한은 총재는 가계부채가 10~11월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이 주택 매매 거래 이후 2~3개월 시차를 두고 실행되는 만큼 매매가 급격히 증가한 8월분이 반영돼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통기업, 중소브랜드 업고 수출 선봉장 서다

K뷰티 돋보기

〈上〉 K뷰티 열풍
3분기 화장품 수출액 10조 달성
실리콘투, 인디브랜드 해외 유통
애경산업과 손잡고 美 마케팅 등
해외 영업·물류시스템 구축 활발

해외 시장에서 'K뷰티' 인기가 높다. K뷰티의 성장으로 국내 화장품 브랜드뿐 아니라 원료제조, 개발, 용기 제작, 유통 등 다양한 분야도 동반 성장하고 있다. <메트로경제신문>은 K뷰티 주역들의 인기 배경과 전망 등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화장품 수출 누적액은 74억달러(약 10조원)를 달성

했다. 지난 2023년 동기 대비 62억달러(약 8조3706억원)에서 19.3% 증가한 규모다. 역대 연간 수출액이 가장 컸던 지난 2021년의 3분기 기준 누적 수출액과 비교해도 8.8%나 성장했다.

이처럼 화장품이 수출 효과 품목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시장에서 유통망, 영업, 물류 시스템 등을 구축한 유통 기업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16일 뷰티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K뷰티 유통 기업 실리콘투는 올해 상반기 매출액 3312억원, 영업이익 683억원을 기록했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43%, 385% 증가했다. 실리콘투는 이미 조선키미, 코스알엑스, 스킨천사 등 국내 인디브랜드를 해외 시장에서 유통해 K뷰티 브랜드 전파력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올해는 보다 다양한 국내 뷰티 브랜드 기업들과 협업을 지

속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내 뷰티 대기업인 애경산업의 경우 지난 4월 실리콘투와 미국 화장품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애경산업은 자사 대표 화장품 브랜드 '에이지투웨니스'를 실리콘투 미국 1호 오프라인 매장 '모이다'에 선보이는 등 실리콘투와 함께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애경산업은 미국 소비자 피피백에 맞게 개발된 제품을 내놓았고 올해 하반기에는 미국 현지 전용 상품으로 선풍제 제품군을 출시할 계획이다. 실리콘투는 미국 서부 현지 법인을 통해 지난 6월 공개한 첫 글로벌 오프라인 매장 '모이다'를 미국 화장품 시장에서 K뷰티 제품들을 한번에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다. (2면에 계속)

/이청하 기자 mlse236@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국세청장 “노태우 비자금 3심 확정 후 과세… 금투세 시행 쉽지 않아” /사진 뉴스1
▲ 대통령실 시민사회1비서관에 주관성 선임행정관 승진 임명

▲ 국세청장, 대통령 관저 이전 업체 의혹에 “탈루 혐의 있으면 언제든 조사”
▲ 검찰, ‘김건희 도이치 의혹’ 레드팀 회의… 이르면 내일 처분



▲ 美 캠벨 “MSMT 출범 대단한 성과… 여타국 합류 원할 것”
▲ 북 도로 폭파로 중단됐던 안보관광 재개… 합참의장은 방미 취소 /사진 뉴스1

‘로봇’ 국가첨단산업 지정 시동 “세계 최고수준 휴머노이드 개발”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휴머노이드, AI 대전환의 핵심
2027년 글로벌 최고수준 목표
내년 상반기 중 프로젝트 시작”



역량을 결집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2027년 글로벌 최고수준의 휴머노이드 개발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 중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휴머노이드 시장 선점을 위해 국내 로봇 기업 지원에 본격 나선다. 로봇을 반도체·배터리 등에 이어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사진)은 16일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학교 기업 에이로봇을 방문한 자리에서 “로봇 분야 ‘A/X(인공지능 전환) 선도 프로젝트’ 등을 통해 2027년까지 휴머노이드 기술 경쟁력을 글로벌 최고 수준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날 박 차관은 “휴머노이드는 산업 AI 대전환의 핵심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며 “미국, 중국 등이 대규모 선제 투자로 앞서나가고 있지만 우리도 인력과 기술력 등에서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휴머노이드 A/X 프로젝트가 AI, 로봇, AI반도체, 부품 기업 등의

역량을 결집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2027년 글로벌 최고수준의 휴머노이드 개발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 중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로봇을 반도체, 배터리 등에 이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며 “추후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될 경우 휴머노이드 등 로봇산업 발전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휴머노이드(Humanoid)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로봇을 말한다. 최근 챗GPT 등 AI 기술 혁신으로 휴머노이드 관련 글로벌 투자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시장 선점을 위한 각국 경쟁도 치열하다. 올해 1월 골드만삭스는 2035년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규모를 380억달러로 예측했는데, 이는 불과 1년여 만에 6배 증가한 수준이다. 최근 엔비디아의 CEO 젠슨황은 “생성AI에 이어 물리(physical)AI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며, 휴머노이드 등 로봇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테슬라는 이제 AI·로봇기업이라며, 수년 내 대량 생산을 목표로 자사 휴머노이드 모델인 옵티머스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다.

이처럼 전 세계가 휴머노이드에 주목하는 이유는 휴머노이드가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산업과 경제, 나아가 개인 삶의 질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휴머노이드가 가진 고도의 인지·판단 능력은 산업현장의 생산성·안전·품질 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정부도 지난달 26일 대통령주재 ‘제1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산업의 AI 대전환(AI: AI Transformation)을 위해 주요 산업에 AI를 접목하는 ‘산업 A/X 선도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내놨다. 산업부는 2027년까지 300개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해 제조, 로봇, 디자인, 유통 등 각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AI와 AI반도체 등 신산업 성장동력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300개 프로젝트 중 가장 먼저 AI 자율제조 분야가 이번 달부터 시작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최태원-김문수, 노동시장 현황 논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왼쪽)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만나 대내외적 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개혁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면담은 김 장관의 ‘경제단체장 소통’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 8월 김 장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최 회장과 김 장관이 면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왼쪽)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만나 대내외적 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개혁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면담은 김 장관의 ‘경제단체장 소통’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 8월 김 장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최 회장과 김 장관이 면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취업자 수 14만4000명 ↑… 증가폭 둔화

통계청, 9월 고용동향

건설업 부문서 10만명 줄어들어
60세이상에서 27만2000명 늘고
15~29세 청년층·40대 감소 기록

지난달 취업자가 전년동월과 비교해 14만4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는 3개월째 10만 명대에 머물며 올해 초(1월, 2월) 30만 명대에 비해 둔화하는 흐름이다. 또 건설업 부문에선 1년 전보다 10만 명 감소했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4년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84만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만4000명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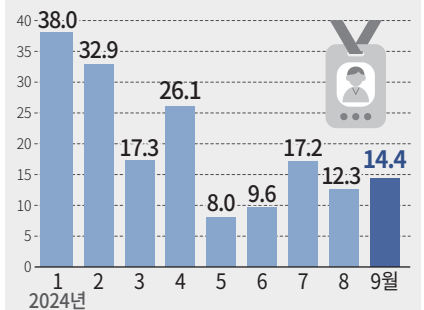
취업자 수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43개월 연속 늘어났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 및 올해 초와 비교하면 최근 증가폭은 둔화했다. 지난해 8월 26만8000명, 9월 30만9000명, 10월 34만6000명, 11월 27만7000명, 12월 28만5000명 등을 기록한 뒤 올해 1~2월에는 30만 명대까지 폭이 확대된 바 있다.

지난달 건설업에서 10만 명 줄어들면서 2013년 10차산업 분류로 개정된 이래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나타냈다. 건설업 취업자 수는 5개월째 뒷걸음질했다.

도소매업 부문도 10만4000명 줄었다. 이는 지난 2021년 11월(-12만3000명) 이후 2년10개월 만에 최대 폭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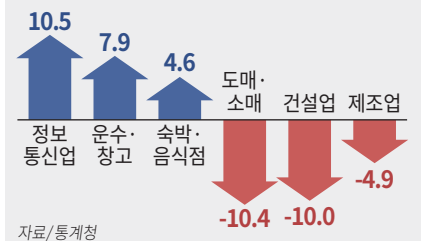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만명, 전년동월대비



산업별 취업자 증감

올해 9월 기준. 단위: 만명



자료/통계청

다. 도소매업은 7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다. 제조업도 4만9000명 줄며 석 달째 내리막길을 걸었다.

나이대별로, 60세이상에서 27만2000명 늘어나며 일자리 증가를 이끌었다. 반면 15~29세 청년층(-16만8000명)과 40대(-6만2000명)에서는 각각 감소를 기록했다. 15세이상 전체 고용률이 63.3%로 1년 전보다 0.1%p(포인트) 상승한데 반해, 청년층 고용률은 45.8%로 0.7%p(포인트) 하락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8.8조 투입… 반도체 글로벌 주도권 확보”

최상목 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
내년까지 4.7조 규모 금융 지원
펀드에 1200억 투입, 4500억 공급



용 규모는 4조7000억 원이다. 지난 6월 중합지원 방안 발표 후 지난 11일까지 8200억 원가량의 저리대출 자금을 공급했다.

정부가 반도체 부문 지원을 위해 내년까지 총 8조8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저리대출 및 펀드 등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 내년까지 8조80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발표로, 지난 6월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이 구체화됐다. 정부가 내년까지 지원하는 금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첫 번째 투자 기업으로 코아시아세미코리아를 선정했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에 12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내년까지 총 4200억 원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으로 1조7000억 원을 편성했다. 저리대출 등을 위해 산업은행에 2500억 원, 펀드에 300억 원을 각각 출자한다. 연구개발에는 7000억 원, 인력양성에 5000억 원, 팹리스 사업화에 1000억 원을 지원한다.

최 부총리는 배달앱 관련 사회적 합의 과정도 언급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덜어드리기 위

한 배달분야 상생 방안을 이달 내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소비자불가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층 일자리 등 민생 관련 취약분야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부문별 고용 상황을 더욱 세밀하게 점검하고, 어려움이 큰 부문에는 적극적인 대응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과 관련해 그는 “최근 물가와 금융비용 부담 등 내수 제약요인이 점차 완화하고 있으나, 채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달 초 마련한 기업투자, 건설투자, 민간 소비 등 부문별 내수회복방안의 집행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경제 최전선의 현장을 찾아, 목소리를 듣고 내수와 민생 과제들을 계속 보완하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청담글로벌, 뷰티매출 908억… 전체의 75%

>> 1면 ‘K뷰티 돋보기’서 계속

해당 매장이 위치해 있는 온타리오 밀스 몰은 미국 캘리포니아 최대 쇼핑 센터 중 하나다.

실리콘투는 K뷰티 플랫폼 ‘스타일 코리아’를 적극 활용해 글로벌 소비자도 공략한다. 차세대 K뷰티 주자로 글로벌 판로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글로벌 뷰티테크 기업 에이피알도 올해부

터 ‘스타일코리아’에서 스킨케어부터 뷰티 디바이스까지 브랜드 핵심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 ‘메디 큐브관’이 마련됐고 제로모공패드, 시카 제품군 등이 매진되기도 하는 등 실리콘투와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국내외 브랜드의 글로벌 유통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청담글로벌도 K뷰티 성장세에 힘입어 성장하고 있다.

청담글로벌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1200억원으로 이 가운데 뷰티&라이프 유통 사업 매출은 908억원으로 그 비중은 75%에 달한다. 특히 청담글로벌은 K뷰티의 중국 시장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청담글로벌은 지난 8월 바이오 신소재 개발 전문기업 셀아이콘랩과 중국, 홍콩 독점 총판계약을 체결했다. 청담글로벌은 셀아이콘랩의 화장품 브랜드 ‘쥬디메르’ 제품을 향후 3년간 중국과 홍콩의 온·오프라인 채널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청하 기자 mlse236@

삼성전자, LED 철수… 메모리 등 재배치

>> 1면 ‘위기의 삼성’서 계속

한국CXO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3~4년 사이 CL3(차·부장급)에 해당하는 40대 이상 직원이 늘고 20대 직원의 수가 줄어드는 추세다. 이에 지난달부터 CL3 직급(차·부장급) 이상에 대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인건비 절감과 함께 사업체 고령화로 인한 기업 내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사업의 집중화 작업도 이어가고 있다. 비핵심 분야인 발광다이오드(LED) 사업에서 철수하고, 기존의 LED 사업인력은 메모리와 파운드리에 재배치할 예정이다. 또 R&D 인력을 메모

리 공정 현장으로 투입해 전반적인 문제 진단을 하기로 했다. 파운드리 설계 등 비메모리 영역 또한 중요하지만 특히 메모리 반도체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달 열린 한국경제인협회 주최 행사에서 삼성전자가 처한 현 위기 상황에 대해 조직문화 변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 전 장관은 “AI 기반 사업 환경에서는 나 혼자 잘해서는 안 되며 생태계 내에서 협력하는 문화가 중요하다. 조직 문화, 기업 문화를 바꿔야 한다”며 “삼성전자가 내부 유보 자금을 어떻게 활용해서 생태계를 빠르게 조성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김서현 기자 seoh@

가상자산시장 독과점 도마위... “중소거래소 진입문턱 낮춰야”

업비트, 시장 점유율 60% 육박
가상자산위, 이달 중 키포프 회의
업계 “경쟁 통해 독과점 해결해야”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 현황판에 비트코인 판매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의 독과점 문제가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당국은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고자 민간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기 위해 ‘가상자산위원회’ 출범을 예고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시장 진입 문턱을 낮춰야 거래소 간 점유율이 고르게 퍼질 것이라 의견이 나오고 있다.

16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중 가상자산위원회 키포프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정책·제도 자문기구로 위원장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맡는다.

금융당국은 15명의 위원 중 정부 측(금융위·기획재정부·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위원 6명과 민간 전문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가상자산위원회가 나오게 된 배경은

업비트 때문이다.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비트의 시장 독점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비트의 예수금과 매출액, 수수료 등이 모두 70%를 넘어 이미 공정거래법상 독과점이다”며 “금융위가 한 업체만 살리고 다른 업체를 죽이는 ‘오징어게임’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업비트의 시장

독점 해소 방안을 적극 요구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시장 구조적 문제나 독과점 이슈는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에서 1개 사업자의 점유율이 50% 이상이면 독점, 3개 사업자 점유율이 70%면 과점으로 보는데 업비트는 현재 시장점유율 59%를 기록하고 있다.

업비트는 지난 2020년 상반기부터 빗썸을 제치고 줄곧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매출은 해마다 연간 1조원을 넘기고 있다. 타 거래소들의 경우 크립토 윈터(가상자산 하락장)에 따른 거래량 감소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든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업비트 독과점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가상자산시장의 진입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간 업계에서는 법인과 외국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해 독점 문제를 해

결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언급했다. 법인 고객이 증가하게 되면 여러 거래소에 대규모 자본이 고루 투입되기 때문에 독과점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은 파생상품과의 연계 등을 허용시켜 시장에 참여자를 늘리고, 거래소와 은행 간 실명확인계좌 개설을 통한 중소거래소의 시장 진입 허용도 독과점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부정적 태도와 시장의 성장을 가로막는 ‘그림자 규제’로 거절당해 왔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독과점 이야기가 지난 2021년부터 나왔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던 것은 정부와 금융당국이 손을 놓고 있었다는 방증이다”라며 “법인과 외국인 투자자 시장 진입 허용이나 중소거래소 실명계좌 허용 등을 통해 경쟁구도가 생겨난다면 가상자산 거래소 독과점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노태우 일가 증여세 편법 의혹 강민수 “법원 확정 후 과세 가능”

〈국세청장〉

2024 국정감사

기재위, 세수입 결손 등 여야 격돌
문다혜씨 주택자금 탈세 의혹도 제기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고(故) 노태우 씨의 비자금조성 및 편법증여(또는 사후 상속)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가 법원에서 확정된 후에야 비로소 국세청이 과세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 노태우 씨(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 300억 원의 비자금을 증여한 것과 관련해 국세청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국세청 방침을 따져 물었다.

이에 강 청장은 “사실관계 확정이나 부과제기간(과세기간) 특례와 같은 법적 요건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3심에서 확정돼야만 움직일 수 있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노태우 씨가 노소영 씨에게 증여한 300억 원에 33년간의 물가상승분을 적용하면 올해 기준 796억 원으로 환산되고 증여세가 440억 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생 증여세 246억 원 대납,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102억 원까지 합치면 증여

세 추정치가 420억~66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강 청장은 “세무조사나 검증은 하는 입장에서, 기존의 재판이나 검찰 수사가 있는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그 부분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그런 내용의 입법이 되면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노 씨 일가의 편법증여 의혹과 관련한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지금 출처 조사 등을 나갔을 때 금융·증빙 자료의 보관 기간을 넘어서면 저희가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주택자금 탈세 의혹도 제기됐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문다혜 씨가 양평동 주택을 2019년 5월 7억6000만 원에 매입해 2021년 2월 9억 원에 매각했고, 당시 주택 매입 자금 일부를 환치기 수법으로 조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당시 청와대 경호원을 통해 태국 현지 업자를 접촉해 국내로 원화를 들였다”며 “환치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자 실질적으로 탈세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법”이라며 세무당국의 조사를 촉구했다.

강 청장은 “세금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면 (국세청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세수입 결손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지난해 56조 원 규모의 이른바 ‘세수 핑크’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도 30조 원대 핑크가 예측되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국감장 업무보고를 통해, 고액 체납·불복 대응 강화 등을 연말까지 다각적인 세수 조달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감장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꼭 해야 하는 9가지 경험

인천 9경

- 1883년 개항장 과거로 시간 여행 떠나기
- 월미바다열차 타고 낭만가득 월미도 즐기기
- 도심 속 포구, 소래포구에서 생태자연 즐기기
- 아경명소 계양 아래에서 빛의 거리 구경하기
- 송도센트럴파크에서 미래도시 산책하기
- 영종 씨사이드파크에서 바닷길 따라 레일바이크 타기
- 강화읍 원도실에서 도보 탐방하기
- 인천 삼형제 섬, 산사모도 일주하기
- 우리나라 최북단 백령도에서 천연기념물 물범 만나기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 | 인천관광공사 Incheon Tourism Organization

스타트업 혁신기술 보호체계 강화... 법적의무·처벌기준 확대

중기부, '혁신기술 보호·구제 방안' 기술 요구·제공 협상, 법적 의무 강화 및 장관 "최소 4배 이상 손해액 현실화"

정부가 상대적으로 자금이 열악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더욱 폭넓게 보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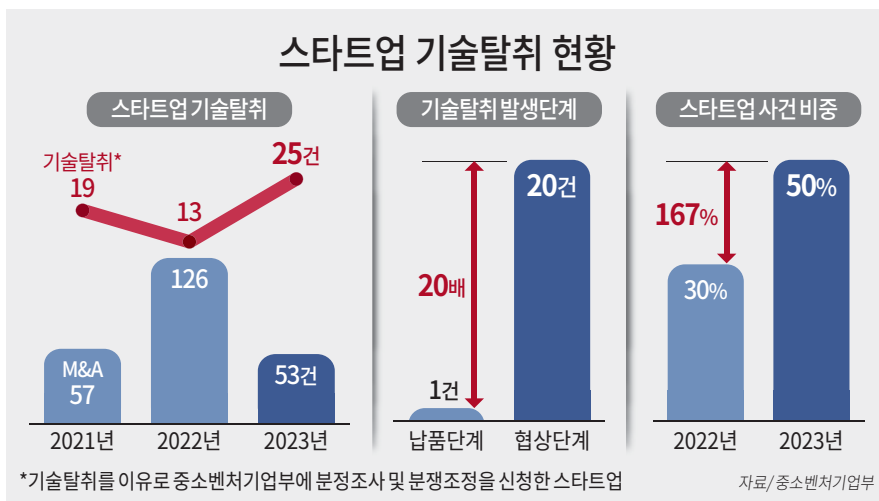
특히 협상·교섭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 요구·제공에 관한 법적 의무를 강화한다.

비밀유지계약(NDA)을 협상·교섭과 같은 모든 양자 관계로 확대 적용하고 기술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다.

기술탈취 범위반행위 관련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신기술이라도 기술 개발에 투입된 비용이 손해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산정 기준도 개선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혁신 기술을 갖춘 스타트업들이 시장의 주축으로 성장하면서 관련 기술침해 사건도 증가세를



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 기술탈취를 이유로 행정조사·조정을 신청한 스타트업은 전년 대비 167%나 증가했다.

하지만 약한 협상력, 법제도 미비, 인력·자금 부족 등으로 스타트업들의 효과적인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제26차 민생토론회(6월20일), 스타트업 기술보호 간담회(7월11일) 등 총 4회에 걸쳐 현장 애로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 4대 중점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숨방망이 처벌 수준 강화 ▲스타

트업 맞춤형 집중지원 강화 ▲피해 확산 방지 기반 구축 등으로 나뉜다.

정부는 스타트업의 부족한 자금 상황을 고려해 비밀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방안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술침해 발생 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CCTV 설치, 전담직원 배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이에 못 미치더라도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수·위탁거래 관계에서만 의무였던 비밀유지계약(NDA)은 협상, 교섭 등 모든 양자 관계로 확대 적용한다.

기술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요구해야 하고, 협상 종료 시 기술 반환 또는 폐기의 법적 의무도 강화한다.

기술탈취 범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도 더욱 높인다.

그동안 시정권고에 그쳤던 행정조치 수준을 시정명령으로 강화하고, 불이행 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형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다.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탈취 등 중대한 범위반행위에는 금전적 제재 조치 수단 도입도 검토한다.

시장에 제품이 출현하지 않았더라도 기술개발 투입 비용이 손해비용으로 인정되도록 손해액 산정 기준도 손본다. 현재는 기술이 양도 혹은 판매돼 실제 발생한 손해만 배상액으로 인정한다.

스타트업들이 개별·산발적으로 지원받던 기술보호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통합·연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을 늘리고 혁신 스타트업에는 바우처 지원 한도와 보조율을 우대한다.

대기업 등과의 NDA 작성 과정에서 불리한 조항이 삭제되거나 독소조항이

추가 되는 등 계약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스타트업 전용 법률 자문 서비스를 신설하고, 기술 분쟁 장기화에 따른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용자·보증 등의 정책자금도 우대 지원한다.

이밖에 정부는 유사한 특허의 출원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정보를 제공하는 핵심기술 모방 조기경보 서비스 도입과 신고 없이도 착수 가능한 직권조사를 통해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를 분쟁 조정 절차에 참여시켜 사실조사를 추진하고, 조정애 앞서 당사자 간 화해를 유도하는 알선 및 직권조정 절차를 신설해 신속한 합의를 유도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기존 법률이 보호하지 못했던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고, 기술개발 비용을 포함해 최소 4배 이상 손해액을 현실화하는 만큼 무형 자산인 기술의 중요성과 그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법개정 등 필요한 사항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김영섭 "혁신·인재가 기업 지속성장 이끈다"

(KT 대표)

KTU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 조직 성장 이끄는 리더십·인재 경영 AI·클라우드 협력으로 글로벌 도약

"경영의 기본은 변동(變通)입니다. 혁신을 실현하는 것이 리더며 경영자는 덕과 인을 갖춘 기인이 되어 합니다."

김 대표가 혁신을 기반으로 한 인재 중심 경영계획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이는 최근 KT의 조직개편 기조와도 맞아떨어졌다. KT는 인공지능(AI) 기업으로 전환을 선언함에 따라 자회사를 설립해 인력을 재배치하고 효율적인 조직관리에 나서고 있다.

김 대표는 16일 서울 중구 더 프라자 호텔에서 열린 'KTU 비즈니스 포럼'의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김영섭 KT 대표가 16일 열린 KTU 비즈니스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구남영 기자

다. 이날 포럼에는 김원규 KTU 비즈니스 포럼 서울 회장, 박광범 KTU 비즈니스 포럼 회장, 이장규 메트로경제

신문 대표, 추교관 유니텍 대표 등 경북대학교 출신 기업인 120여명이 참석해 조직운영관리를 주제로 정보를 교류했다.

이날 김 대표는 조직관리의 핵심으로 혁신과 사람을 꼽았다.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과 인재가 핵심 요소라는 설명이다. 특히 조직의 혁신을 위해서는 변화를 기반으로 구성원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기업이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며 "혁신은 내부에서 스스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외부에서라도 도입해야 한다"며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

했다. 최근 KT가 마이크로소프트(MS)와 협력한 것도 이러한 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KT는 지난 6월 MS와 AI·클라우드·IT 분야 협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는 글로벌 생성 AI 시장 강자로 꼽히는 MS가 국내 기업과 AI 프로젝트로 손잡은 첫 사례다. 회사는 이를 통해 국내를 넘어 글로벌 AI·클라우드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표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발전된 기술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인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계가 혁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계는 도구일 뿐, 이를 활용해 실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사람이고 결국 혁신

에는 인재가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재를 발굴해 조직문화에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도 인재를 꼽았다. 이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것이 경영의 핵심이라고 했다. 그는 "기업의 성장과 발전은 임직원의 역량에 달려 있다"면서 "조직의 성과는 리더의 능력에 의해 결정되며, 훌륭한 리더가 있는 조직만이 진정한 혁신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혁신을 위해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기업의 혁신은 한 명의 리더나 소수의 엘리트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라며 "인재의 육성과 발전을 통해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스트레스 DSR 3단계 조기시행 전망"

>> 1면 '금리 내리자...'서 계속

서울 아파트값은 정부가 가계 대출을 옥죄면서 9월 셋째주부터 상승 폭이 줄었다. 하지만 이 같은 둔화세가 대출 금리 하락으로 인한 주택 구입 부담 경감, 매수심리 강화 등에 따라 다시 상승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도 신축·학군 수요 등에 따른 국지적 상승세가 보인다"며 "집값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 가계대출도 재차 늘어나게 되고, 이 경우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도 더 힘이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 DSR에 전세·정책대출 포함 유력

금융당국은 가계부채가 증가할 것을 우려해 가계부채 관리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에 전세·정책대출에 대한 DSR을 지역, 소득, 주택여부에 따라 파악할 수 있도록 데이터 산출을 요청했다"며 "필요시 추가 대책을 과감하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DSR에 전세·정책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이다. DSR은 연 소득에서 대출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현행 차주별 DSR규제는 매년 갱신해야 할 대출 원리금이 은행 기준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세대출은 이 같은 DSR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DSR 적용대상은 유주택자인 임차인

의 전세대출(1주택자가 추가로 전세대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대출의 경우 소득·지역 요건이 간간해질 수 있다. 지난달 은행권에서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4조원으로 전달보다 2조4000억원 줄었지만 정책대출인 디딤돌·버팀목대출 증가폭은 3조8000억원으로 전달(3조9000억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디딤돌·버팀목대출은 정부가 무주택자에게 주택구입 자금과 전세자금 등을 저리로 빌려주는 상품으로, 지난 8월 최대 0.4%p 금리를 올렸음에도 수요가 여전히 많다. 충족 요건 수준을 좁혀 수요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DSR 3단계도 조기 시행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나유리 기자 yul115@

장인화 "탄소배출량 측정 표준화 속도내야"

(포스코 회장)

세계철강협회 신임 집행위원 선임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철강협회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신임 집행위원에 선임되며 글로벌 경영 행보를 펼쳤다. 장 회장은 앞으로 3년 동안 세계철강협회 집행위원으로서 저탄소 기술·제품 개발, 환경, 안전과 관련한 세계철강협회의 운영 정책 및 방향 등을 결정한다.

16일 포스코홀딩스에 따르면, 장 회장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세계철강협회 집행위원회 회의에 글로벌 철강사 CEO(최고경영자)들과 함께 참석했다.

세계철강협회는 철강산업의 이해와 이익 증진 활동을 목표로 하는 철강업

계 대표기구로, 전 세계 철강사는 물론 지역별 철강협회, 연구기관 등 총 155개 회원사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15일 열린 회원사 회의에서 세계철강협회 신임 집행위원에 선임된 장 회장은 ▲저탄소 기술 및 제품 개발 ▲환경 ▲안전 등 세계철강협회 운영 정책과 방향을 결정한다. 임기는 3년이다.

이날 장 회장은 "철강산업의 탄소중립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공평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저탄소 철강 제조 방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협회 주도로 추진 중인 탄소배출량 측정방식의 글로벌 표준화를 보다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양성운 기자 ys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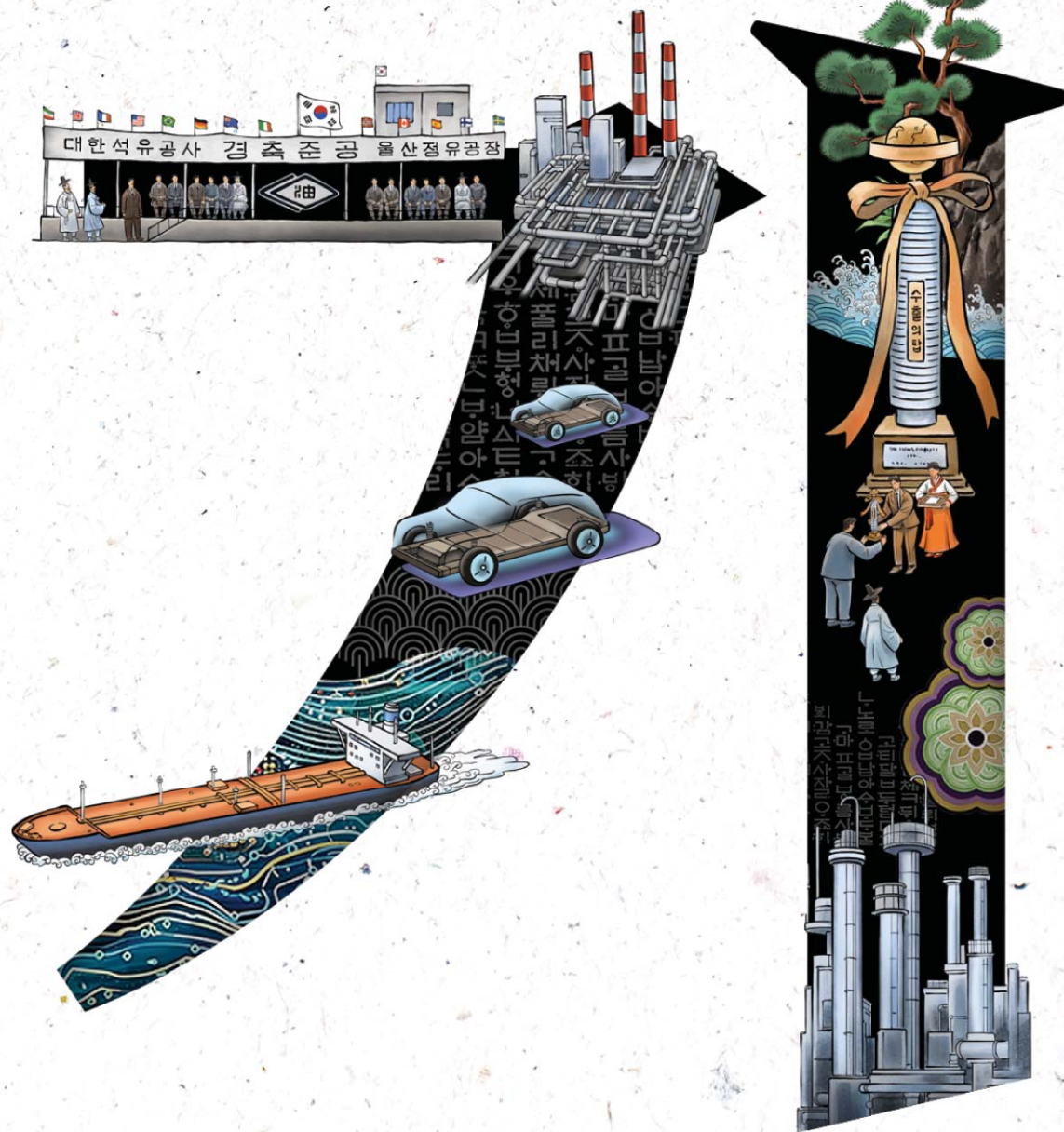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나의 도전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미래의 나는
지금의 나를 넘어설 것이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시 미래에너지까지

혁신에 혁신을 더하다



QR코드를 찍고
내일의 에너지를
확인해보세요



당정, 명태균 '폭로의 늪'서 허우적... 친윤-친한 갈등까지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

친윤 “한동훈, 선거 결과 책임 회피 김 여사 문제 통해 덮으려는 생각”
친한 “대통령실 해명, 설득력 미미 제2부속실 설치만으로 해결 안 돼”

정부여당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폭로가 만든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명 씨는 지난 15일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과 나는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하면서 정치권에 충격을 줬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로 추정되는 사람이 언급하는 '오빠'가 김 여사의 친오빠라고 해명했으나,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명 씨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자신을 향해 감옥에 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폭로에 나서고 있다. 명 씨는 CBS라디오에 다시 출연해 “자료 정리를 싸해야 한다. 자료를 정리해서 매일 퍼다 주겠다”라며 “김 최고위원 때문에 (폭로) 하는 것이다. (김 의원에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말라고 하는데도, '명 씨



박찬대 국회 운영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 등 국정감사 증인 채택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뉴시스

를 잡아 넣겠다. 구속하겠다’라고 (김 최고위원이) 한다면 자기가 감당해 봐야 한다”고 경고했다.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는 명 씨의 카톡 공개로 더욱 문제가 된 김 여사 문제를 놓고 이견이 크다. 친 윤계로 분류되는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6일 라디오에 출연해 “(김 여사가) 비교적 최근이라 하더라도 대

통령을 지칭할 때 아주 사적인 자리였다 하더라도 명 씨 카톡에 나온 것과 같은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등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여당 후보의 패배의 책임을 김 여사 탓으로 돌리려는 의도라고 추측했다.

그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에 대해 ‘잘 되면 내탓, 잘 안 되면 이거는 용산 탓, 김건희 여사 탓’으로 돌리는 책임 회피성 김 여사 공격”이라며 “최소한의 동지 의식 위에서 쓴소리를 해야지, 김 여사를 불모 삼아서 대통령을 압박하고 본인의 책임이나 무능을 김 여사 문제를 통해서 덮으려고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최고위원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명 씨 카톡 공개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해명에 대해 “황당하다. 그런 식의 설명이 과연 먹힐까, 설득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당 입장에서 한동훈 대표가 계속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 않다. 그것을 미적미적 끌어오던 와중에 이런 게 터졌기 때문에, 어제도 한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해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김 여사의 업무를 담

당하는 제2부속실 설치와 관련해 “만약 제2부속실을 설치한 다음에 이른바 김 여사 라인이라는 분들로 채워버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지금 제2부속실을 설치하는 것만으로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그렇게 간단치 않은 상황이 돼버리지 않았나”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김 여사와 명 씨를 ‘총선 공천 개입, 명품가방 수수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대통령 관저 공사 수수 의혹’ 등을 묻기 위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운영위는 김 여사의 친오빠인 김진우 이 에스아이엔디대표를 ‘친인척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총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강해경 씨, 김 대남 전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 이원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황중호 대통령실 행정관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운영위, 민주당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 국감 증인 의결

명태균·김대남 등 33명 증인 채택
특별추천위 구성 등 개정규칙안 회부
국민의힘, 野 일방적 처리에 반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내달 1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증인명단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의사진행에 반발해 퇴장했다. 또 이날 운영위에선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하며 상설특검을 가동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운영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 힘 의원들은 야당이 요청한 증인만 일

방적으로 처리한다고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운영위는 오는 31일 국가인권위원회·국회, 내달 1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국감 채택된 증인은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대통령실 선거 개입 의혹 관련자인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원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전 인사비서관),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의혹을 폭로한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인 강해경 씨 등 33명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 이종호 전 블랙펠 대표, 이정필 김 여사 도이치 주식 거래계좌 관리인 등이 채택

됐다. 대통령실관저 이전 등 불법 의혹 관련 증인으로는 김태영 21그램 대표, 정영균 희림 대표, 송호준 전 대통령경호처 과장 등을 불렀다. 대통령실 이전 관련으로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북한 오물풍선 투하 관련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참고인으로는 대통령실 선거 개입 의혹 관련 장인수 전 MBC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이태원참사 2주기 관련 송해진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 등 3명을 채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문재인 정부 의혹 등을 추궁해야 한다고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문 전

대통령 아들 준용 씨와 딸 다혜 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운영위는 이날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해 운영개선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상설특검을 가동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민주당은 국감이 끝난 직후인 내달 ‘김건희 특검법’을 보완하기 위해 상설특검을 띄우겠다는 계획이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입법 없이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삼부도건 주가조작·마약수사 외압·국

회 증언감정법 위반 의혹’ 등 김 여사가 연루된 여러 논란들을 상설특검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특검 임명을 위한 추천위는 제1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여당 몫 추천위원 2명과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지난 8일 발의된 이날 운영개선소위로 넘어간 규칙 개정안은 특검 추천 권한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과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일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 교섭단체의 추천 권한을 배제하는 것이 골자다.

야당의 일방적인 소위 회부에 배준영 원내수석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불공정한 특검을 강행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로 통과하지 않은 부당한 법안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예진 기자 syj@

김한길 “문학번역원 설립 때 ‘노벨문학상 받을 날 올 거다’ 말해”

(국민통합위원장)

일자리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 출범식
3개 분야 중심 정책과제 도출 계획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사진)은 16일 “한국문학번역원을 설립하면서 ‘인젠가는 노벨문학상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다’라고 말한 기억이 난다. 그리고 실제로 20년이 지나 이런 결과가 나오니 참으로 기쁘다”며 국민통합위의 일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자리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특위) 출범식을 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국민통합위는 소규모 기업과 비정규직, 무노조 기업 근로자들이 심각한 수준의 일자리 격차 문제에 처해 있다고 보고 이날 특위를 출범시켰다. 특위는 ▲



임금 격차 해소 ▲ 노동시장 유연성·이동성 제고 ▲ 노동약자 보호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과제를 도출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정치인이나 소설가인 김한길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과거 자신이 문화부 장관이던 시절, 한국문학번역원 설립을 주도했던 일화를 꺼냈다.

24년전 문화부 장관에 재직하던 김 위원장은 국회의원 시절 후원회 기부금(9846만원) 가운데 사용하고 남은 잔액 2143만원을 ‘한국문학번역금고’에 기탁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에 이어, 노벨문학상에서도 수상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한국 문학번역사업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며

기탁 사유를 밝혔다.

이후 2001년 한국문학번역원이 설립됐다. 당시 한국 문학 작품은 국제적으로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한국 문학 번역도 매우 제한적이고 기반이 미미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은 온국민이 함께 기뻐할 만한 일”이라며 “저는 남달리 더욱 그렇다”며 감회를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일자리 격차 해소 특위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 특위에서 굉장히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낸다고 해도 그 성과가 당장에는 빛나기 어려울 것이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그때 그런 노력이 있었기에 이런 변화가 있기 시작했구나’라고 평가받으면 우리가 다같이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예진 기자

“불법 과다청약, ‘내 집 마련 꿈’ 앓아가”

청약시장에 부동산 투기꾼 몰려

시세보다 낮게 주택 구입이 가능한 청약시장에 한탕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꾼들이 몰리면서 무주택서민의 내 집 마련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태영 국민의힘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16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7월까지 60회 이상 과다청약자는 총 166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다 청약자의 지역별 청약 현황을 보면, 서울 46.5%, 경기 38.6%, 인천 8.9%, 세종 2.4%, 부산 1.6%, 대구 1.3% 순으로 수도권이 94.0% 를 차지했다.

최다 청약자는 서울에 사는 A씨(43세)로 2019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지 서울·경기·인천·세종 지역의 주택 청약에 155회나 신청했다. 한 달에 3.2회 꼴로 신청한 A 씨는 지난해 3월 청약경쟁률 2.63대 1을 기록했던 인천 검단신도시의 한 아파트(금강펜테리움 3차센트럴파크) 청약에 당첨됐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위장전입 및 자격·통정 매매, 위장 혼인·이혼·미혼 등의 부정청약 적발은 부동산 광풍이 불었던 2021년 362 건으로 전년 대비 82.8% 급증한 뒤 2022년에는 269 건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286건으로 6.3% 증가했다.

임태영 의원은 “불법 과다청약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가는 사회악”이라며 “과다청약자는 별도 관리를 통해 투기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밤 늦게도, 휴일에도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 어린이집

신청구분 | ①365일형: 24시간 ②주말·공휴일형: 토/일요일, 공휴일 9시~18시
신청방법 | 하나돌봄365 홈페이지(www.hanadolbom365.com)



돌봄 신청하기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동작구수방사 공공분양’ 아파트 투시도. /홈페이지

수방사 일반청약 1147 대 1 공공분양 사상 최고 경쟁률

22세대 모집에 2.5만명 접수
서울 중심지에 한강조망 ‘인기’

서울에서 한강뷰가 가능한 알짜 입지가 주변 시세보다 수억원 이상 저렴한 가격에 나오면서 4만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렸다. 특히 일반공급의 경우 청약이 대거 몰리며 경쟁률이 공공분양 사상 최고 기록을 남기게 됐다.

15일 LH청약플러스에 따르면 전일 동작구수방사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일반공급 청약이 진행된 결과 22세대 모집에 2만5253명이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경쟁률은 무려 1147대 1에 달한다.

경쟁률로 보면 서울 지역에서 최고를 기록했던 강남구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1025대 1)는 물론 전국 최고 경쟁률이었었던 성남수정구관교테크노벨리 중흥S-클래스(1110대 1)보다 높다.

앞서 조건이 제한적인 특별공급 역시 평균 경쟁률이 557대 1로 높았다. 30세대 모집에 1만6724명이 접수했다. 유형별로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

공급 경쟁률이 1000대 1을 웃돌았다. 동작구수방사 공공분양단지에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일대에 지상 최고 35층 5개동, 556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서울 중심지인 데다 한강조망까지 가능한 입지라 사전청약 당시에도 경쟁률이 세자릿수를 기록한 바 있다.

총 556세대 가운데 공공분양 주택은 263세대다. 전용면적은 모두 59㎡다. 당초 사전청약 당첨자 224가구 중 211가구만 본청약을 신청하면서 52세대에 대한 청약이 진행됐다.

분양가는 타입과 층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9억2000만원에서 9억5000만원 안팎이다. 인근 래미안 트윈파크는 59㎡가 지난 8월 15억1000만원에 거래됐음을 감안하면 5억원 안팎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소위 ‘로또 청약’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31일이며, 입주는 2028년으로 예정됐다. 재당첨제한 10년,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가 각각 3년이다. /안상미 기자

예적금에 뭉치돈... 통화량 15개월째 ↑

8월 시중통화량 4602.6조
한 달 전 대비 7.6조 증가

올해 8월 시중에 풀린돈이 7조6000억원 늘었다. 금리가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해 미리 예적금에 가입하려는 수요가 늘고, 증시변동성이 확대되며 투자 대기성 자금이 증가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24년 8월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올해 8월 시중통화량 평균잔액은 광의통화(M2) 기준 4062조6000억원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7조6000억원(0.2%) 증가했다. 지난해 6월 0.3% 반등한 이후 15개월째 상승세다.

M2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협의통화(M1)에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등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통화지표다. 시중 유동성을 뜻한다.

상품별로 보면 정기예적금이 11조5000억원 늘었다. 한달 전(5조3000억원)과 비교해 2배 많은 수준이다.

한은 관계자는 “예대율(예금잔액 대비 대출잔액 비율) 관리를 위해 은행들이 자금유치 노력을 확대했다”며 “당시 금리가 제일 높을 것이라고 판단해 예

적금을 가입하는 수요가 늘면서 정기예적금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기타통화성 상품도 3조8000억원 늘었다. 수출호조와 증시변동성 확대로 투자 대기성자금이 증가해 외화예수금과 CMA를 중심으로 늘어난 영향이다. 반면 금융채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단계적 정상화에 대비해 상반기 은행채를 선발행하고, 하반기 금리인하 기대에 발행을 이연하면서 2조5000억원 감소했다.

경제주체별로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M2가 정기예적금을 중심으로 5조1000억원 늘었다. 기타금융기관은 정기예적금 및 시장형상품 중심으로 6조3000억원 증가했다.

기타부문은 머니마켓펀드(MMF)를 중심으로 2조원 줄고, 기업은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 시장형 상품을 중심으로 5000억원 감소했다.

단기자금 지표인 협의통화(M1)은 8월 기준 1217조8000억원으로 한달전과 비교해 1조2000억원, 0.1% 증가했다.

M1은 은행의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등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해 높은 수익률을 좇아 움직이기 쉬운 자금을 의미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한강 작가가 부른 ‘독서열풍’에 카드사, 도서할인 등 마케팅 분주

한강작가 작품 온오프 ‘완판 행렬’
우리카드, 선착순 130명 할인쿠폰
비씨카드, 에스24·교보문고 할인
기존 카드 도서할인 혜택도 많아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에 카드업계 또한 분주한 모양새다. 도서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등 맞춤형 마케팅을 준비하면서다. 도서 관련 혜택을 담은 상품도 출시했던 만큼 과거 발급 받은 신용카드 기능을 점검해 보라는 조언이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달 우리카드는 도서 구매 고객을 위한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오는 29일까지 매일 선착순 130명에게 2000원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할인을 적용하기 위해선 에스24에서 ‘우리 원 페이’를 이용해 3만원 이상 결제하면 된다.

같은 기간 비씨카드는 ‘마이태그’를 활용한 할인 혜택을 마련했다. 에스24와 교보문고에서 3만원 이상 결제하면 2000원을 할인한다. 비씨카드는 물론 IBK기업은행과 BNK부산은행, Sh수협은행 등을 포함한 회원사 12곳의 신용카드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다.

업계에서는 한동안 도서 할인 행사가 활발해질 것이라 관측이다. 한 작가의 노벨상 수상 이후 원서를 소장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는 데다 MZ세대를 중심으로 종이책 읽기가 유행처럼 번지는 ‘텍스트립(Textrip)’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케팅 비용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미래 고객을 확보할 기회라는 평가다.

현재 한 작가의 작품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완판 행렬을 이어 가고 있다. 한 작가의 수상 이후 쿠팡에서는



서점에 방문한 한 시민이 한강 작가의 시집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채식주의자’가 1시간만에 모두 매진됐다. 서점가에서는 물량 부족에 예약판매를 접수 받고 있다. 교보문고에서는 ‘노벨상X한강’이라는 항목을 별도로 만들었으며 에스24 국내도서 톱 8위는 모두 한 작가의 작품이다.

카드업계에선 과거 발급했던 신용카드 혜택을 주목하라고 조언한다. 각 사별 발급량이 높았던 상품 중 도서 할인 기능을 탑재한 신용카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 1인당 보유한 신용카드 수는 4.4장이다. 장롱속 카드를 확인해 볼 만 하다.

삼성카드의 베스트셀러인 ‘모니모카드’는 온라인 교보문고에서 사용한 금액의 30%를 월 최대 1만원까지 할인 적용한다. 이어 온라인 쇼핑몰 이용 금액의 7%를 월 최대 5000원까지 절감할 수 있다. 연회비는 국내전용과 해외겸용 모두 1만원이다.

신한 레슨 플래티넘(Lesson Platinum)은 ▲에스24 ▲반디앤루니스 ▲영풍문고 ▲교보문고 ▲인터파크 도서 ▲알라딘 등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도서 구매 가격의 5%를 할인한다. 전

월 실적에 따라 월 최대 5만원까지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연회비는 5000원이다.

KB국민다담카드는 ‘선택적립 서비스팩(교육팩)’을 선택하면 서점에서 월 최대 1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전월 실적은 30만~60만원이며 연회비는 국내전용 1만5000원, 해외겸용 2만원이다.

독서에 취미가 붙었다면 제휴카드도 눈여겨 볼 만 하다. 상업자표시 신용카드(PLCC) 강자인 현대카드의 ‘에스24 현대카드’다. 에스24에서 sey페이로 결제하면 한도 제한 없이 적립 가능하며 이외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금액의 1%를 포인트로 쌓을 수 있다. 연회비는 1만원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한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MZ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한 독서 유행이 가파르게 번질 것”이라며 “도서 할인의 경우 저렴한 연회비로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만큼 과거 발급 받은 카드를 확인해 보길 권장한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이재근 행장 “기존에 없던 새 상품 만들 것”

KB국민은행-스타벅스 업무제휴
생활밀착형 임베디드 금융 서비스

KB국민은행과 스타벅스가 손을 잡았다.

KB국민은행은 스타벅스 코리아와 업무제휴 협약을 맺고 특화 금융상품, 간편인증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업계 선두주자인 두 기업은 상호 협력을 통해 커피와 금융이라는 각자의 분야를 넘어서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지난 15일 서울 중구 소재 스타벅스 코리아 지원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와 이재근 KB국민은행장 및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행장은 “이번 업무제휴를 통해 3400만명의 KB국민은행 고객과 1300만명을 돌파한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을 대상으로 양사의 강점을 활용하여 기존에 없던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행장은 또 “고



지난 15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스타벅스 코리아 지원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오른쪽 첫번째)와 이재근 KB국민은행 은행장(왼쪽 첫번째)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국민은행

객의 일상 속에 스며드는 생활 밀착형 임베디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계좌 간편결제 도입 ▲제휴 통장 출시 ▲KB국민인증서 도입 ▲고객 리워드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협업 모델을 발전해

나가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내년 1분기부터 스타벅스 앱에 오픈뱅킹 기반 계좌 결제 수단을 제공한다. 스타벅스는 기존에 온라인 결제수단으로 선불카드 형태의 스타벅스카드와 신용카드가 가능했으나 이번 제휴를 통해 계좌 결제 방식을 새롭게 추가해 고객 편의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美 태양광 상계관세 적용 국가 확대... 韓 반사이익 기대감

캄보디아 등 동남아 4개국 부과
국내 제품 수입비중 상승 관측
업계 “장기적으로 긍정적 영향”



한화큐셀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태양광 발전소 전경

/한화솔루션

미국이 최근 중국의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 조치를 강화한데 이어 동남아 지역에서 수출되는 제품에도 상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국내 태양광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고 있으나, 업계에선 예상만큼 예비 관세율이 높지 않아 내년 초 최종 관세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일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4개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셀·모듈에 예비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상계관세는 수입품이 국내산 제품과 경쟁할 경우 국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로 부당한 보조금을 받은 외국 기업의 수출 제품이 저가 공세로 시장을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국가별 관세율은 캄보디아 8.25%,

말레이시아 9.13%, 태국 23.06%, 베트남 2.85%이며 90일 전부터 수입된 제품들까지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앞서 중국 태양광 업체들은 미국의 무역 제재가 강화되자 베트남을 통한 우회 수출을 크게 늘렸다. 미국의 수출 관세를 피하고자 부품을 베트남에 수출하고 베트남에서 완제품을 조립한 뒤 이를 베트남산 제품으로 위장해 미국에 수출한 것이다.

이에 한화큐셀과 퍼스트솔라 등 미국 태양광 제조업체 연합은 동남아시아 4

개국에 태양광 패널 공장을 둔 중국 기업들이 부당한 보조금을 받아 생산비용을 밀도는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미국 시장에 판매해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조사와 관세 부과를 요청한 바 있다.

블룸버그는 미 상무부의 이번 결정이 미국 내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들이 동남아산 패널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BNEF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모

듈 주요 수입국은 베트남(25.6%), 태국(22%), 말레이시아(15.1%) 등으로 모두 미국 상계관세 부과 후보들이다. 예비 관정이 최종 관정까지 이어진다면 그동안 상대적으로 점유율이 낮았던 국내 제품의 수입 비중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가 이르다는 지적도 따른다. 업계에서는 국가별 관세율이 예상보다 낮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남아산 상계관세가 최소 15%~20%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으나 태국을 제외하고 이에 못 미쳐 시장 기대를 밀돌았다는 것이다.

미 상무부가 상계관세를 크게 인상하지 않은 이유로는,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신규 설비 설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관세 조치로 당장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큰 이득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최종 관정에서 관세율이 인상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기아 ‘더 기아 타스만’ 티저 이미지.

기아, ‘타스만’ 티저 공개

기아의 야심작이자 첫 번째 픽업트럭인 ‘타스만’이 모습을 드러냈다.

기아는 16일 브랜드 최초의 픽업트럭 ‘더 기아 타스만’의 티저 이미지와 영상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기아는 이날 공개한 티저 이미지를 통해 타스만의 강인하고 단단한 느낌의 윤곽선을 강조하고 다양한 지형을 넘나드는 다재 다능한 활용성을 암시했다.

영상은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새로운 픽업 타스만을 완성했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전자

‘북5 프로 360’ 출시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PC ‘갤럭시 북5 프로(Pro) 360’을 오는 28일 국내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북5 Pro 360’을 삼성닷컴에서 단독 판매하며, 공식 출시에 앞서 27일까지 출시 알림 신청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갤럭시 북5 프로 360은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 시리즈 2(코드명 루나레이크)’를 탑재한 코파일럿+ PC로 보다 뛰어난 AI 성능과 안정성을 제공한다. 사용자는 갤럭시 북5 프로 360의 AI 기능을 활용해 창작, 커뮤니케이션, 자료 검색 등 더 많은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갤럭시 북5 프로 360은 40.6cm(16형) 단일 사이즈이며, 색상은 그레이와 실버 두 가지이다. 프로세서와 메모리 등 세부 사양에 따라 242만 6000원, 257만 6000원 두 개 모델로 출시된다. /구남경 기자 koogija_tea@

SK케미칼

SPS 라인업 강화

SK케미칼이 지속가능 패키징 솔루션(Sustainable Packaging Solution, SPS) 라인업 강화에 나섰다.

SK케미칼은 재활용성과 성형·가공 다양성을 높인 코폴리에스터 ‘에코트리아 클라로 300 (ECOTRIA CLARO 300)’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에코트리아 클라로 300’은 투명성, 내화학성 등 코폴리에스터의 고유 물성과 재활용성을 갖추면서도 압출 블로우 성형 (EBM, Extrusion Blow Molding) 이 가능한 소재다.

SK케미칼은 대용량 생수통, 주스, 음료 등 투명성이 필요한 대형 용기 시장을 적극 공략해 EBM 용도시장에서 코폴리에스터 판매량을 약 3만톤 수준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차현정 기자

마세라티, 럭셔리 전기차 시동... ‘폴고레’ 라인업 선배

‘그레칼레 폴고레’ 등 신모델 공개
“전기차도 마세라티 DNA 확고히”

이탈리아 럭셔리카 브랜드 마세라티가 내연기관부터 순수 전기 모델까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그레칼레’의 폴 라인업을 국내에 공개했다.

마세라티는 한국 시장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전기 모델 ‘그레칼레 폴고레’에 이어 ‘그란투리스모 폴고레’ 등 전기차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마세라티는 16일 서울 광진구 워커히 호텔앤리조트 애스톤하우스에서 ‘일상의 경험을 특별하게: 하우스 오브 마세라티’ 행사를 열고 브랜드 전력과 함께 그레칼레 폴 라인업을 공개했다.

마세라티에 내연기관 및 하이브리드 모델에 이어 전기 모델 폴고레가 추가되면서 선택지가 넓어졌다. 이탈리아 럭셔리를 추구하는 마세라티 고객들은 자신이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가



마세라티 코리아는 16일 ‘일상의 경험을 특별하게: 하우스 오브 마세라티’ 행사를 열고 그레칼레 폴 라인업을 공개했다. /박대성 기자

장 적합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마세라티 지오반니 페로시노 CMO는 “럭셔리 세계는 선택이 중요하다”며 “새로운 폴고레 옵션을 더함으로써 큰 메뉴가 생기고, 고객이 선택하도록 모든 것을 오픈하겠다”고 말했다.

‘폴고레’는 이탈리아어로 ‘번개’라는 의미다. 마세라티의 퍼포먼스와 사운드 매력을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의

지를 담았다고 한다.

마세라티는 이름에 담은 의미대로 전기차라는 특수성과 타협하지 않고 하이퍼퍼포먼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400V 기술 기반의 105kW CATL 배터리를 장착했으며, 최대 820Nm의 토크를 발휘한다. 최고 410kW의 출력을 자랑하며 최고 속도는 220km/h다.

현대차·기아, ‘프레스 금형 자동설계 시스템’ 개발

“제조 생태계 기술발전 기여할 것”

“수치 입력만 마치면 복잡한 금형 설계가 ‘뚝딱’”

현대자동차·기아가 수십 년간 쌓아온 제조 노하우를 기반으로 차량용 프레스 금형 설계를 자동화하는 ‘프레스 금형 자동 설계 시스템(이하 자동 설계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프레스 금형은 자동차의 외관을 생

산할 때 사용하는 도구다. 차량의 트렁크, 후드, 펜더 등을 제작할 때 활용한다. 구조에 따라 하나의 외판 부품에 총 3~5번의 프레스 공정이 필요하다. 공정마다 각기 다른 금형을 사용한다.

현대차·기아는 금형 설계를 위한 기술 문서와 설계 조건 등의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금형 설계 프로세스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했다. 자동 설계 시스템 프로세스에 따라 단계별로 필요

수치만 입력하면 최적의 프레스 금형 설계 도면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것이다. 자동 설계 시스템을 활용하면 프레스 금형 설계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이 약 75%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설계 오류 발생을 원천 차단할 수 있어 일관된 고품질의 부품을 생산할 수 있다.

현대차·기아는 2020년 프레스 금형 자동 설계 시스템을 일부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최근 모든 프레스 공정의 금

형 설계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현대차·기아는 자동 설계 시스템의 강점을 다양한 제조 공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프레스 금형 자동 설계 시스템은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의 데이터화를 통해 구현한 독보적인 시스템”이라며 “고품질의 차량 생산을 위해 보다 다양한 공정으로 확대하고 제조 생태계 전반의 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세계 최초

‘SOOP’ 이름만 바꾼 반쪽 개편 자극적·선정적 콘텐츠 논란 여전

아프리카TV, 사명·서비스명 변경
성 상품화 ‘엑셀방송’ 카테고리 여전
후원 시스템 ‘별풍선’ 그대로 유지

이미지 쇠신과 글로벌 진출을 선언한 스트리밍 플랫폼 아프리카TV(SOOP)가 사명과 서비스명을 바꾸는 강수를 뒀다.

SOOP은 그동안 매출 확대를 위해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개인 방송을 방조하고 더 나아가 장려하기까지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근에는 SOOP을 통한 후원이 돈세탁 수단으로 활용된 증거까지 나오며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개편 후에도 성 상품화 논란이 인 ‘엑셀방송’ 카테고리 등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이미지 쇠신 의지에 의문이 제기된다.

16일 SOOP이 지난 3월 사명을 바꾼 데 이어 서비스명을 ‘SOOP’으로 변경했다. SOOP은 초기 서비스명 ‘W플레이어’를 2006년 ‘아프리카TV’로 바꾼 후 처음이다. 스트리밍 방송 진행자를 부르던 호칭인 ‘BJ’도 ‘스트리머’로 변경했다. 다만 후원 시스템을 뜻하는 ‘별풍선’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SOOP은 1분기 사명을 변경한 데 이어 3분기 서비스명을 변경하고자 했으나 연예기획사 매니지먼트 숲이 상표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변경이 미뤄졌다. 법원이 이달 4일 매니지먼트 숲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SOOP은 15일 새벽 전체점검을 진행하며 UI/UX 업데이트와 함께 서비스명 변경을 마쳤다.

SOOP은 콘텐츠 다변화를 통한 이미지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SOOP은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를 중계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지역 상생 콘텐츠를 내며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SOOP이 기존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고 사명과 서비스명을 바꿨으나 이용자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UI/UX 일부가 바뀐 것 외의 차이가 없다는 평



아프리카TV에서 활동 중인 BJ커맨더지코가 16일 진행한 엑셀방송 모습. 여성BJ들을 시청자가 지목해 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별풍선을 쓰면 여성BJ가 나와 인사하고 춤을 춘다. /화면 캡처

가다. 그동안 계속해서 문제시 된 선정성 높은 방송에 대한 제재 또는 분리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약관 및 정책 또한 동일해 “이름만 바뀌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이날 오후 방송을 진행 중인 H 스트리머는 방송 중 “갑자기 아프리카TV가 바뀌었는데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동료는 사용하기 불편하다고 하는데 왜 바뀐 건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엑셀방송 또한 여전히 카테고리로 남아있다. 엑셀방송은 다수의 스트리머가 한 방송에 출연해 시청자의 후원(별풍선)을 경쟁하는 방송 포맷이다. MS 오피스 엑셀에 순위와 받은 합계 별풍선을 쓰면서 엑셀방송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별풍선을 더 받기 위해 스트리머들이 선정적인 퍼포먼스를 벌이고 시청자들 또한 응원하는 스트리머의 순위를 올리기 위해 무분별한 후원을 하면서 선정적인 콘텐츠를 방조하는 SOOP의 대표적인 행태로 꼽힌다.

거액의 돈이 오가는 만큼 이른바 ‘별풍선강’으로 불리는 돈세탁에 이용된다는 주장도 있다. SOOP에서 활동하는 스트리머 감동란(김소은)은 지난달 방송 중 “(별풍선강은) 누군가가 별풍선을 쓰면? BJ는 몸값이 올라가 유명세를 누린다”며 “BJ는 받은 별풍선을 돈으로 환전하고, 세금과 수수료를 떼고 별풍선을 쓴 사람에게 돌려주는 방식인데, 돈세탁이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미 불법 자금세

탁에 대한 심각성을 이미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지하고 있고 엄중한 감시가 이뤄지는 점과 환전에 따른 높은 수수료율과 고려할 때 돈세탁 창구로 이용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그러나 10월 현재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SOOP 별풍선을 대량으로 구입·판매하는 거래글이 활발하게 올라오는 만큼 감시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SOOP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방송에 대한 개편 의지가 사실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 박종권 국민의힘 의원이 아프리카TV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프리카TV는 지난해 별풍선 상위 10명의 BJ에게 총 656억원을 지급했다. 이는 2021년 132억원, 2022년 214억원 대비 1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한 금액이다. 이 중 상위 9명이 엑셀방송을 진행하는 스트리머였으며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인 스트리머인 ‘커맨더지코’가 1년 간 벌어들인 금액은 200여억 원에 달했다. SOOP은 별풍선 수익 중 20%를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간다. 즉 커맨더지코 1명만으로 연간 20억원 이상의 수익을 얻은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는 높은 수익을 내는 최상위 스트리머들의 콘텐츠를 제재해야 하는데 콘텐츠 제재와 불확실한 장기 전략 사이에서 확고한 선택을 하기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LG CNS, AI 기반 美 광고시장 진출

美 unBoxed서 ‘옵타펙스TM’ 공개

LG CNS가 14일(현지시간)부터 16일까지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열리는 ‘unBoxed 2024’ 행사에서 ‘LG 옵타펙스TM(LG OptapexTM)’을 공개했다. LG CNS는 내년 상반기 미국 시장에 ‘LG 옵타펙스’를 본격 출시할 계획이다.

unBoxed는 아마존의 디지털 광고 사업 부문인 ‘아마존 애즈(Amazon Ads)’가 광고 대행사, 미디어렐사 등 광고기업, 셀러(제품 판매기업), IT기업 등을 대상으로 매년 진행되는 광고 컨퍼런스다.

LG CNS가 새롭게 선보인 LG 옵타펙스는 AI, 수학적최적화(Mathematical Optimization) 등 DX 신기술 기

반의 디지털마케팅 최적화 플랫폼 MOP(Marketing Optimization Platform)의 글로벌 버전이다. LG 옵타펙스는 세계 최대 e커머스 채널인 아마존에 특화돼 있다.

실적 예측, 광고 예산 설정, 자동 광고 입찰 등을 수행하며, 셀러들의 광고 활동을 가능화한다. LG 옵타펙스에 탑재된 AI가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예산, 광고 입찰 가격 등을 예측하면, 수학적최적화 기술이 AI의 예측 값을 활용해 현재 가진 자원과 변수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LG CNS는 약 30개 기업들과 LG 옵타펙스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며 지속적인 성능 고도화를 하고 있다.

/김서현 기자

BMW 고성능 세단에 신차용 타이어 공급

한국타이어 ‘벤투스 S1 에보 Z’ 공급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BMW의 고성능 세단 ‘M5’ 7세대 모델에 초고성능 슈퍼스포츠 타이어 ‘벤투스 S1 에보 Z’를 신차용 타이어로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BMW와 약 3년에 걸친 개발을 거쳐 고성능 세단만의 독특한 주행 역학이 완벽히 발휘되더라도 낮은 회전저항으로 연료 소비를 줄이는데 성공했다. 엄격한 기준인 ‘벤투스 S1 에보 Z’는 BMW의 오리지널 타이어 심볼인 ‘스타마크’를 획득하며 최상위 수준의 기술력을 입증했다.

‘벤투스 S1 에보 Z’는 높아진 하중에도 높은 조종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넓은 접촉면과 트레드 블록 사이의 넓은 간격은 탁월한 핸들링 성능을 유지하며, 강화된 아라미드 하이브리드 벨트 장착으로 마른 노면에서의 성능을 한층 끌어올려 준다. 고속 주행에서 원심력이나 횡력으로 인해 타이어에 불필요한 변형이 발생



한국타이어 BMW 고성능 세단 M5에 신차용 타이어 공급.

되는 것으로 최소화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제품 개발을 위해 한국타이어는 주행 테스트 과정에 AI 지원 알고리즘을 적용했다. 가상 공간 및 레이싱 트랙 등에서 수많은 조건을 적용해 최적의 핸들링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했다. 또한 안전 및 코너링 등의 완벽한 조합을 확인하기 위해 ‘뉴러브크리닝 노르트슬라이피’와 ‘나르도 트랙’에서 테스트 주행도 진행했다.

/양성운 기자 ysw@

LGU+ “AI 보이싱부터 아트워크 체험”

‘익시X무너’ 팝업스토어 운영

LG유플러스는 자사 캐릭터 무너를 활용해 자체 인공지능(AI) 기술 ‘익시(ixi)’를 체험할 수 있는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LG유플러스가 오는 27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LG전자의 복합문화공간 ‘그라운드220’에서 ‘익시X무너’ 팝업스토어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그라운드220은 LG전자가 2022년 MZ세대 고객들이 다양한 제품과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한 복합문화공간이다.

팝업스토어를 방문하는 고객은 ▲익시를 활용해 나만의 무너 아트워크를 직접 생성해 보는 ‘익시 프롬프트’ ▲원하는 캐릭터의 목소리와 통화 연결을



LG유플러스는 자사 캐릭터 무너를 활용해 자체 인공지능(AI) 기술 ‘익시(ixi)’를 체험할 수 있는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위 사진은 고객이 서울 양평동 ‘그라운드220’에서 진행되는 LG유플러스 팝업스토어에서 ‘익시 프롬프트’를 체험하고 나만의 굿즈를 제작해 선보이고 있는 모습. /LG유플러스

문구를 직접 설정하는 ‘AI보이스링’ 테스트 버전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이혜민 기자

리멤버, AI 채용 비서로 인재 확보 전략 강화

‘리멤버엔컴퍼니’로 사명 변경
제2의 도약 위한 전방위적 사업 확장
고객 맞춤형 비즈니스 솔루션 성장

수익화에 성공한 명함·커리어 관리 플랫폼 ‘리멤버’가 사명을 ‘리멤버엔컴퍼니’로 변경하고 제2의 도약에 나선다. 최재호 리멤버엔컴퍼니 대표는 16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리멤버 본사에서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리멤버의 Next Chapter’를 주제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했다.

최 대표는 기존 사명이던 ‘드라마엔컴퍼니’에서 서비스명을 전면으로 내세운 ‘리멤버엔컴퍼니’로 사명을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지금 리멤버

성장의 중요한 변곡점”이라며 “수익화에 성공한 만큼, 고객 중심의 사업 모델을 더욱 공고히 하고, 전방위적인 사업 확장을 통해 고객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멤버는 현재 기업의 인재 채용을 돕는 ‘채용 솔루션’과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해 주는 ‘세일즈&마케팅 솔루션’ 두 축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리멤버는 최근 채용 트렌드에 발맞춰 경력직 수시 채용 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2019년부터 기업 인재팀이 리멤버를 통해 인재를 검색하고 스카웃 제안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누적 이용 건수는 700만 건을 넘어섰다.

최 대표는 상위 30% 인재(경력직 구직자)를 타겟으로 한 프리미엄 채용공고 서비스 출시 계획도 밝혔다. 그는 “기존 채용 방식으로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어, 리멤버만의 차별화된 인재 풀을 활용해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멤버는 인공지능(AI) 기반의 ‘AI 채용 비서’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채용 과정을 자동화하고 있다. 기업이 리멤버의 ‘인공지능(AI) 채용 비서’ 서비스에 직무기술서를 입력하면 AI가 적합한 인재를 자동으로 추천해준다. 최종 결정 후에는 챗GPT가 스카웃 제안 메시지까지 자동으로 작성해 발송해준다.

/이혜민 기자 hyem@



제13회 2024 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

10. 18.(금) - 10. 22.(화) / 5일간
잠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

통합의학 메카 장흥!
건강한 삶의 장을 열다.



주최



전라남도
JeollaNamdo



장흥군
Jangheung County

주관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추진위원회



문의처 |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추진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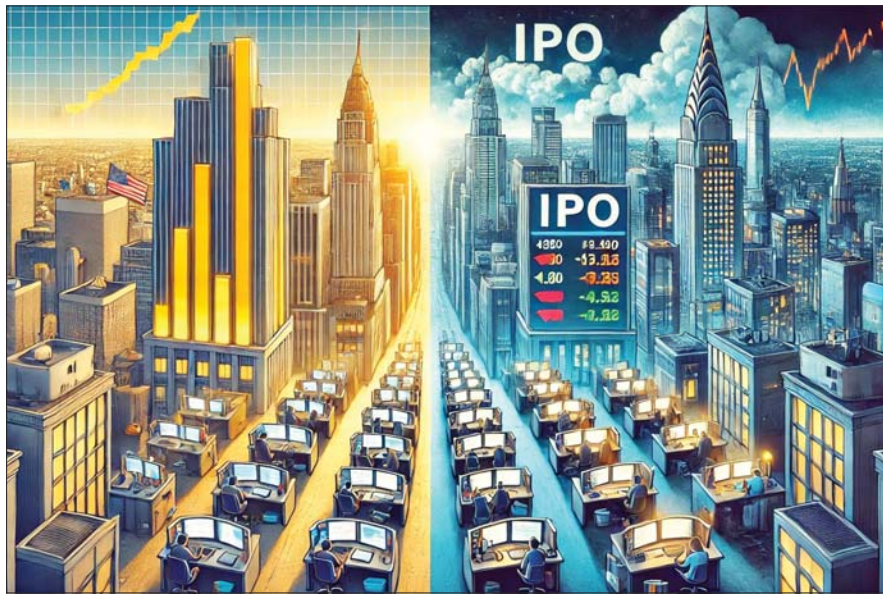
061-860-6263, 6266

‘IPO 슈퍼워크’ 진입에 분주한 대형사… 중소형사는 ‘조용’

유안타·SK·현대차·상상인증권
올해 기업공개 실적 ‘0건’ 집계
하반기 공모주 일정 몰려있지만
대부분 대형사 주관… 양극화 심화
중소형사, 부동산 PF 부실 타격 영향

성수기에 진입한 공모주시장에서 대형 증권사들이 치열한 주관 실적 순위 경쟁을 펼치고 있지만, 중소형사들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증권사들이 몸살을 앓으면서 자본 규모에 따른 실적 양극화가 심해지는 모습이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유안타증권, SK증권, 현대차증권, 상상인증권의 기업공개(IPO) 실적은 ‘0건’으로 집계됐다. 4개 증권사의 지난해 평균 실적은 1.75건이었으나 올해는 전무하다. 주관 실적 상위 4개 증권사의 평균은 8건이다. 올해 유안타증권은 원투씨엠의 주관을 맡았었지만 해당 기업



ChatGPT에 의해 생성된 대형 증권사와 중소형 증권사의 양극화를 보여주는 이미지.

이 상장 계획을 철회했으며, SK증권 역시 대표주관사로 선정된 로직헬스케어의 연내 상장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이번 주 ‘IPO 슈퍼워크’가 시작되면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대형사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지난 1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에이치엔에스하이텍, 씨메스, 클로봇, 웨이비스 등 4건의 일반 청약이 예정돼 있으며, 하반기에는 공모주 일정도 몰려 있지만 대부분 대형사들이 주관하면서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로 시작된 업황 둔화가 특히 중소형사에 강하게 적용되면서 희비가 교차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중소형사들은 대부분 ‘원툴(한 가지를 능숙하게 하는 것)’ 전략에 집중해 왔기 때문에 주력 사업이 무너진 후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대형사들의 주관 실적 순위는 아직 판가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날 기업공개(IPO)를 진행한 케이뱅크를 비롯해 더본코리아, SGI서울보증보험 등 ‘조 단위 대어’ 기업들의 증시 입성을 대기 중이기 때문이다. 다만 케이뱅크는 예상 시가총액 최소 3조9586억원에서 최대 5조원의 몸값을 받으면서, 과대평가했다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케이뱅크 측은 “케이뱅크는 관심을 가져도 좋을 만하다”고 자신감을 드러낸 상태인 만큼 흥행 여부가 더욱 주목된다. 대표 주관사는 NH투자증권, KB

증권 등이다.

KB증권은 상반기까지만 해도 올해 IPO 주관 실적 선두를 달리고 있었다. 다만 3분기 들어서 미래에셋증권이 전진건설로봇·산일전기 등 중형급딜을 주관하면서 1위 자리를 뺏기는 등 5위까지 밀려났다. 3분기 기준 1위를 차지한 미래에셋증권은 4분기에도 조 단위 대어인 SGI서울보증보험을 포함한 다수의 딜을 준비하고 있다. 이외에도 에이치엔에스하이텍, 클로봇, 와이제이링크 등 다수의 IPO가 대기 중이다. 이번 주에도 청약 일정 중 절반이 미래에셋증권 담당인 셈이다.

하지만 각사들의 주관 실적 차이가 근소한 만큼 1위 추격의 기회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분기 기준 주요 증권사들의 IPO 인수금액은 미래에셋증권 5444억원, 한국투자증권 4347억원, NH투자증권 3592억원, KB증권 3252억원 등이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디딤펀드 활성화 힘 쏟는 금투업계… 차별·실효성은 ‘글썩’

상품 출시 3주 만에 ‘디딤펀드 출범식’
기존 채권 혼합형·ETF 상품 이미 존재
디폴트옵션 승인 받지 않은 점도 문제

금융투자협회와 운용업계가 디딤펀드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만만치 않아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얻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협회와 운용업계가 상품 출시 3주 만에 출범식을 연 것도 디딤펀드에 대한 차별성과 실효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투협은 1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디딤펀드를 출시한 25개 자산운용사와 함께 ‘디딤펀드 출범식’을 개최했다. 디딤펀드는 주식이나 채권 등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하는 연기금형 자산배분형 펀드다. 서유석 금투협회장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디딤펀드는 은행 예·적금에 쏠린 퇴직연금자산을 펀드 시장으로 가져와 실질적 노후 준비를 돕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실제로 지난 2분기 말 기준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가입자 중 약 87%는 ‘초저위험’



서유석 금투협회장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디딤펀드 출범식에서 25개 자산운용사 대표이사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상품인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투자해, 1년간 수익률이 평균 3.47%에 그쳤다. 이에 따라 금투협은 운용사 대표들과 함께 출범식을 갖고 디딤펀드를 널리 보급하며 책임 운용 및 수익률 제고의지를 다졌다.

서유석 금투협회장은 “연금투자 근간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소외됐던 자산배분형 밸런스펀드(BF)를 그 중심으로 가져오자 하는 노력의 결과로 디딤펀드가 출시됐다”며 “협회는 출시에 역할을 마치는 게 아니라 디딤펀드가

시장에 안정하게끔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서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호주의 디폴트옵션인 마이슈퍼(Mysuper)는 기금별 운용 상품을 단일화해 가입자 선택편의성, 상품의 비교가능성, 운용사 관리효율성 등을 증대시키며 대표상품 형태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각 운용사별 단수의 대표 자산배분형 BF를 디딤펀드로 제시한 것은 의미 있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디딤펀드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는

업계 움직임과는 달리 시장에서는 디딤펀드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 않은 편이다. 자산운용사들이 은행의 퇴직연금 상품보다 높은 목표수익률과 자산배분 전략을 내세우며 상품을 소개하고 있으나 아직 투자자들의 주목을 끌지 못하고 있다.

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퇴직연금 시장에 다양한 상품이 있지만,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며 “기존의 안정적인 채권 혼합형 상품이나 ETF 상품들이 이미 존재해, 디딤펀드가 특

별한 매력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다 운용사별로 평가 특징을 줄 수 있을 만한 요소들도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서 회장은 디딤펀드가 기존 펀드와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최근 흐름에 맞지 않다”, ‘소구점이 부족하다’ 등이 어찌보면 맞는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디딤펀드는 퇴직연금의 근간이 되는 밸런스펀드이기 때문”이라며 “디딤펀드는 베스트셀러가 아닌 스테디셀러”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디딤펀드가 퇴직연금 사전 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디폴트옵션으로 승인받으면 은행 창구로부터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대다수 적격 상품이 타깃데이트펀드(TDF)로 구성돼 있고 BF유형은 적은 상황이다.

디딤펀드는 업계의 공동브랜드이지만 각 운용사들이 ‘차별화’된 상품으로 수익률을 내느냐에 따라 향후 업황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운용업계 다른 관계자는 “운용사와 협회 모두 이 상품들이 잘되기를 바라며 지원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추가적인 매력 요소가 부족해 자금 유입이 미미하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삼성전자, 外人 순매도 ‘역대 최장’… 증권가 “기업가치 저평가”

(26거래일 연속)

ASML ‘실적쇼크’에 주가부진
증권가, 매수의견선 ‘동상이몽’

삼성전자를 향한 외국인의 투자심리가 연일 악화되며 삼성전자의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가 ‘기업가치 저평가’ 상태에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매수’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시가총액 1위 기업이자 국내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종가는 2.46% 하락한 5

만9500원을 기록했다. 전거래일에 외국인인 매도세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개인투자자와 기관의 매수가 주가를 끌어올리며 ‘6만 전자’를 탈환했지만 이날은 장 초반부터 2.62% 하락한 5만940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이로써 이날까지 26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순매도하면서 역대 최장 순매도 기록을 경신했다. 종전 기록은 2022년 3월 25일부터 4월 28일까지의 25거래일이었다. 이날 외국인은 2734억원어치를 순매도 했다. 그러나

개인은 3128억원치를 순매수하면서 장 초반보다 낙폭을 줄인 채 장을 마감했다.

삼성전자의 주가부진은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의 ‘실적 쇼크’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를 독점 생산하는 ASML은 15일(현지시간) 내년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ASML은 중국 매출 감소를 예상하며 내년 순매출액이 30억~35억 유로(약 4조4600억~5조2000억 원) 사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ASML은 내년 매출 전망도 300억~

350억 유로로 기존(300억~400억 유로)보다 하향 조정했다. 그 결과 이날 뉴욕증시에서 ASML은 16.26% 급락했다.

ASML의 부진으로 뉴욕시장에 상장된 반도체 종목 주가도 덩달아 떨어졌다. 엔비디아는 4.5%, AMD는 5.2%, 브로드컴은 3.4% 하락했고, 이에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도 5.3% 하락한 채 장을 마쳤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 ‘매수 의견’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박상욱 신영증권 연구원은 “내년 D램 생산능력(Capa)의 약 30%가 HBM으로 전환되면 공급부족이 발생해 메모리 가격 상승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된

다”며 “내년 업황 개선을 삼성전자 밸류에이션(가치평가)이 올해 하반기부터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반대로 김용구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바닥권 주가에도 기회비용이 너무나 크다”고 평가했다. 김 연구원은 “낙폭과대 주가, 밸류에이션과 최고위층 반성문을 근거로 저가매수당위성과 시급성을 주장하는 시장 일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이는 상당기간을 두고 싸움이 가능하고, 삼성전자 보유에 따른 추가 기회비용이 제한되는 초장기, 극소수 개인 투자자 일방에 국한된 단편적 전술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허정원 기자 zelkova@

소비 촉진에도 남아도는 쌀... “생산량 과감하게 줄여야”

농식품부, 초과 생산 20만t 격리
비축량·비축 비용만 늘어나

유통업계, 음료·가공식품·간식 등
쌀 소비촉진 위한 상품출시 잇따라
“정부, 농작물 변경 적극지원 필요”



지난 4월 4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저온저장고에서 관계자가 가득 쌓여 있는 벼 포대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쌀 비축 비용이 늘어나면서 정부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쌀 생산이 수요를 넘어서면 양곡관리법에 의해 초과 물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쌀 소비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도 쌀생산량에는 변동이 없어 비축량·비축비용만 늘어나고 있어서다.

유통업계도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쌀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이고 나섰다. 하지만 쌀 소비를 늘리기에는 역부족이다. 일각에선 쌀 생산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부는 쌀 20만톤(t)을 격리하겠다는 방침 외에 아직까지 큰 움직임은 없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매매 손실을 포함한 쌀 비축비용은 1조7700억원으로, 2022년(1조1802억원)보다 50% 가량 늘었다. 이는 공공비축제도가 도입

된 2005년 이후 최고치다.

올해 8월 말 정부가 비축한 쌀 재고 물량은 115만6000t으로, 유엔식량농업기구가 권고한 한국 비축 물량(80만 t)의 1.4배가 넘는 수준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나해에 쌀 재고 물량이 많다 보니 이에 따른 관리 비용 등이 많이 들어 일반회계 전입금이 불어난 것 같다”면서도 “다만 식량 안보나 쌀값 안정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쌀을 사들여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쌀의 비축량과 비축비용은 지

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쌀 값 안정을 위해 쌀을 추가적으로 사들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15일 쌀 생산이 소비량보다 12만8000t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이보다 많은 20만t을 시장격리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10만5000t)의 거의 2배 되는 수치다. 시장격리란 정부가 쌀을 사들여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유통업계 쌀 소비 촉진 위해 쌀 활용한 다양한 상품 선보여

이같은 상황에 유통업계가 팔을 걷어붙였다. 남아도는 쌀을 활용한 음료, 가공식품, 간식 등을 선보이고 있는 것.

쌀 소비 촉진을 늘리기 위해 가장 적극적인 곳은 신세계푸드다.

신세계푸드는 최근 서울 성수동에 있는 유명 카페 8곳과 협업한 행사 ‘카페 라이스 베이스드’를 열었다. 협업 카페들은 신세계푸드의 식물성 음료인 ‘유아맛유잇 식물성 라이스 베이스드’를 활용해 라이스 라떼·라이스크림·라이스 빙수·라이스 푸딩·라이스 칵테일·라이스 콘파나 등 메뉴들을 개발했다.

라이스 베이스드는 국산 가루쌀, 현미유 등 100% 식물성 원료를 넣은 게 특징이다.

오리온은 최근 100% 국산 쌀로 만든 ‘뉴루지’를 선보였다. 일반적인 스넥과 다르게 튀기지 않고 오븐에 구웠으며 100% 국산 쌀을 사용해 가볍고 바삭한 식감과 달콤 고소한 맛이 조화를 이룬 쌀과자다.

SPC 비알코리아가 운영하는 던킨이 최근 선보인 ‘라이스 글레이즈드’는 쌀가루를 넣은 반죽으로 만들어 단백질이 특징인 제품이다. CJ제일제당은 자사 브랜드 ‘햇반’을 활용한 ‘얼티브 프로틴

쌀밥맛’을 선보였다.

하림, 오투기, CJ 등이 선보이는 즉석밥 시장도 날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쌀 자체의 생산량을 과감하게 줄이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쌀을 비축하고 사들이고, 유통업계가 아무리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다양한 상품을 선보인다고 해도 근본적인 쌀 생산 자체가 줄지 않으면 이같은 악순환은 지속될 거라는 우려에서다.

업계관계자는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지금 일정 부분의 쌀을 사들이는 건 올바른 선택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쌀 자체의 생산이 과잉되고 있다는 점을 봐야 한다. 쌀 생산 자체를 줄이기 위해 다른 농작물로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도 11월 중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술, 가공식품 등에 쌀을 적극 활용해 소비 저변을 넓히고 한국 쌀을 해외진출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쌀 생산 조절에 대해선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현대모비스, 슬로바키아에 유럽 첫 PE시스템 공장 구축

(전기차 핵심 부품)



슬로바키아 정부와 투자협약 체결
글로벌 전동화사업 기회 확대 전략

현대모비스가 전동화 기술력을 앞세워 해외수주 100만달러 시대 진입을 위해 드라이브를 건다.

현대모비스는 현대차와 기아를 비롯해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전동화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유럽에 전기차 핵심 부품인 PE(Power Electronic)시스템 공장을 신규로 구축한다. 유럽의 폭스바겐을 중심으로 스텔란티스, 볼보 등에 전동화 부품을 수주를 통한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슬로바키아 노바키 지역에 전기차 핵심 부품인 PE시스템 신공장 구축과 기존 질리나 공장 내 전기차용 제동시스템 등을 생산하는 공장



현대모비스가 유럽 지역 세번째 전동화 거점으로 구축하고 있는 슬로바키아 전동화 신공장 조감도.

신축을 위해 슬로바키아 정부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체코와 스페인 공장에 이어 유럽 지역 세번째 전동화 거점이자 유럽 첫 PE 시스템 생산 거점이다. 이는 유럽 내 보호 무역 주의가 강화되고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속도조절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투자와 현지화 전략으로 글로벌 전동화 사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현대모비스는 현재 체코에서 배터리 시스템(BSA)을 생산 중이며, 스페인

에는 폭스바겐 공급을 위해 배터리 시스템 공장을 짓고 있다. 이번 슬로바키아 노바키 공장은 전동화 분야 또다른 핵심 부품인 PE시스템을 생산하기 위한 유럽 첫 생산 거점이다. PE 시스템은 전기모터와 인버터, 감속기가 통합된 전동화 구동 장치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이규석 사장은 “슬로바키아 정부의 지원 아래 노바키 지역에 건설하는 PE시스템 신공장을 중심으로 중부 유럽 지역에서 전동화 사업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004년 초 슬로바키아 법인(MSK)을 설립한 뒤 질리나 지역에 모듈 공장을 구축한 이래, 20년 넘게 슬로바키아 정부와 사업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 슬로바키아 새 거점 구축에는 약 3500억원이 투입된다. 먼저 새 전동화 생산 거점은 축구장 14개 크기인 약 10만 5700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선다. 총 2500억원이 투입되며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공장이 완공되면 유럽 지역에 연산 30만대 규모의 PE시스템 생산 거점이 마련된다. 기존 슬로바키아 질리나 공장 부지 내에 신축되는 제동시스템과 에어백 생산 공장에도 약 950억원이 투입된다.

슬로바키아에는 기아를 비롯해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재규어랜드로버 등의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포진해 있고, 볼보도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LG유플러스 AI 스타트업 발굴·육성 창업지원 ‘쉬프트’ 가동

LG유플러스는 인공지능(AI) 기술을 보유한 국내외 대학 연구소의 창업팀을 포함한 AI 관련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 ‘쉬프트(shift)’를 본격 가동한다고 16일 밝혔다.

쉬프트는 LG유플러스가 AI 기술 고도화를 목표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대학 연구소의 창업팀과 관련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쉬프트에 선발된 스타트업에겐 ▲ 전용 펀드를 통한 자본투자 ▲ 기술 지원 ▲ 사업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LG유플러스와 사업 협력도 추진함으로써 우수한 미래 기술을 조기에 선점하고, 급성장하는 AI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자체 개발한 AI 기술인 익시(ixi)의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사업화 검증(PoC)을 할 수 있는 기회와 비용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이 개발한 미래 기술이 실제 사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모집 분야는 ‘AI를 포함한 혁신적인 미래 기술’이며 프로그램 지원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시드(Seed)에서 시리즈(Series) A 단계의 석박사 기술 인력을 보유한 스타트업 및 대학 연구소 창업팀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 및 연구팀은 사업 계획서 혹은 사업화 검증 계획서를 LG유플러스 쉬프트 공식 지원 사이트로 제출하면 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전자금융업자 제재근거 마련 ‘티메프 사태’ 재발 막아야”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진공 등과 ‘S.O.S. Talk’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독과 온라인 판매대금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나왔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사진)은 16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중소기업발전진흥공단 경기

지역본부·경기동부지부·경기남부지부와 함께 ‘S.O.S. Talk’ 개최했다.

간담회에선 티메프 사태와 관련된 건의가 주요하게 논의됐다. 참석 중소기업 대표들은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이 방만하게 운영된 근본 원인을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경기도 이전에 소재한 화장품 제조·판매기업인 A사는 이번 티메프 사태와 같

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등록된 전자금융업자가 경영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면 ‘조치 요구권’ 등의 실효성 있는 제재 근거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결제대행업체(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에 대한 별도 관리를 의무화하고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이나 별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



계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소비기한 표시제도 시행 및 인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도 나왔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다양한 건의와 애로를 직접 듣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면서 “지속적으로 관계 부처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기준치 넘지 않았지만”... 항공 승무원, 방사선 노출에 불안감

방사선 안전 기준 6mSv 이내 관리
지난해 평균 피폭방사선량 1.72mSv
에어프레미아 3.21mSv 가장 높아

항공 승무원의 피폭 방사선량 안전 기준(6mSv) 이하로 노출되더라도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항공운송사업자 피폭방사선량 및 안전조치 결과보고에 따르면 2023년 전체 항공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 평균은 약 1.72mSv(미리시버트)다. 피폭방사선량 관리 기준은 6mSv.

기준 수치를 초과한 항공사는 없었지만 소량의 방사선 노출이 지속되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운항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은 평균 1.51mSv·최대 5.09mSv이며, 객실승무원은 평균 1.82mSv 최대 4.93mSv다.

원자력안전재단은 “실행 기관이다 보니 기준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기준이 6mSv로 설정된 것은 국제 기구 권고나 유럽 기준을 참고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항공업계는 안전 기준인 6mSv보다 강화된 기준이 나오면 그에 맞춰 안전



국적사 항공기 모습.

/뉴스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피폭방사선량이 가장 높은 항공사는 에어프레미아였다. 평균 3.21mSv, 최대 5.09mSv 수준이다.

원자력안전재단 관계자는 “에어프레미아가 높게 나온 것은 주로 장거리 노선을 운영하고, 대형항공사에 비해 노선이나 승무원 풀이 적어 평균값이 높게 나온 것 같다”며 “단순하게 특정 항공사 하나만 높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에어프레미아는 임신한 승무원은 1mSv 이하로 유지하며, 노출량이 5~5.5mSv인 승무원은 방사선량을 낮추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하는 등 승무원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외 국적사들도 승무원이 연간 피폭 방사선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장·단거리 근무 일정 편성을 조정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임신한 승무원의 경우 노출량 기준치(1mSv)를 넘지 않도록 비행 업무에서 배제하고 있다. 임신으로 인한 근무 배제 조치를 보고한 항공사는 에어부산(8건), 에어프레미아(1건), 이스타항공(1건), 티웨이항공(7건) 등이었다.

한편 원자력안전재단의 혈액검사에서 수백 명의 직원이 재검이나 추적관

찰이 필요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저비용항공사(LCC) 업계는 잘못된 정보가 확산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해당 조사는 빈혈이나 체질상의 문제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조사”라며 “(건강 이상 집계)카운팅이 잘못된 정보가 기정사실처럼 퍼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원자력안전재단 관계자는 “해당 조사(혈액검사)가 우주방사선 영향인지 다른 체질 질병 등에 대한 영향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2023년 6월부터 시행하다보니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대성기자 iunmids@metroseoul.co.kr

한솔제지

종이 디자인 공모전

내년 1월 2일까지 제품 접수

한솔제지가 제 7회 인스퍼 어워드(INSPIER AWARD)를 열고 내년 1월 2일까지 종이를 활용한 디자인 작품을 접수한다.

16일 한솔제지에 따르면 인스퍼 어워드는 한솔제지가 2018년부터 개최해 온 국내 최초 페이퍼 디자인 공모전이다. 인스퍼는 한솔제지 팬시지의 대표 브랜드로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을 불어넣는(Inspiring) 종이(Paper)’를 의미한다.

인스퍼 어워드는 인쇄, 출판, 기획 등 관련 종사자 또는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참가하는 일반부와 전국 디자인 관련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부로 구분하며, 참가자는 종이로 제작된 책·패키지·스테이셔너리(소품, 생활용품, 문구류) 등의 디자인 작품을 출품하면 된다.

이번 어워드 시상상은 출품작에 사용한 지종에 따라 일반부는 인스퍼상, 블랙페이퍼상, 골든페이퍼상을 수여하며, 학생부에는 인스퍼상과 영디자이너상이 각각 돌아간다. /김승호 기자

SKT, AI 윤리 강화한 ‘T.H.E. AI 행동규범’ 도입

비차별·비폭력 가치로 사회문제 해결
AI 기술로 디지털 약자 없는 세상 구현

SK텔레콤은 글로벌 AI(인공지능) 컴퍼니로 도약하기 위해 AI거버넌스 기본 원칙을 구체화한 ‘AI 행동규범’을 사규에 반영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서약에 전 구성원이 동참했다고 16일 밝혔다. AI거버넌스는 AI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해 AI 파라미터 전략이 강한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SK텔레콤이 경영시스템에 선제적으로 도입한 AI기술관리 체계이자 추구 가치다.

SK텔레콤의 AI거버넌스 기본 원칙

인 ‘T.H.E. AI’는 ‘by Telco, for Humanity, with Ethics AI’를 축약한 것으로, ▲SKT AI의 특성(by Telco, 통신기술 기반으로) ▲목표(for Humanity, 사람을 향한, 사람을 위한) ▲가치(with Ethics, 윤리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를 의미한다.

SK텔레콤은 이러한 AI거버넌스의 주요 원칙들을 종합해 전 구성원들이 ‘T.H.E. AI’를 실천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행동 원칙과 기준을 명문화한 ‘AI 행동규범’을 수립했다.

‘통신기술 기반(by Telco) 행동규범’은 이동통신 사업(Telco)에서 축적

된 고객 데이터 관리 노하우를 다양한 AI 기술 서비스에 적용, 고객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 고객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지속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을 향한(for Humanity) 행동규범’은 AI 기술이 모든 고객에게 편향 없이 작동해 디지털 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이를 통해 교육, 건강, 고용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AI 서비스 환경을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윤리적 가치 중심(with Ethics) 행동규범’은 AI기술에 비차별·비폭력 가

치가 적극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 개발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실천을 통해 사람 중심의 AI를 추구한다.

한편, SK텔레콤은 ‘글로벌 AI 컴퍼니’를 비전으로 삼고 AI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AI 의사결정 체계를 회사경영에 도입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대외협력 담당(CGO)이 총괄하는 AI 거버넌스 전담 조직을 신설, AI 거버넌스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경영 전반에 필요한 AI거버넌스를 확립하여 조직간 시너지 창출에 매진하고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청호나이스

“정수기로 홈 스타일링” ‘뉴 러블리트리’ 출시

청호나이스가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한 정수기 ‘뉴 러블리트리’ (사진)를 출시했다.

16일 청호나이스에 따르면 새롭게 선보인 ‘뉴 러블리트리’는 최근 홈 스타일링에 관심이 높아지는 트렌드를 반영해 자사의 핵심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디자인으로,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모던 스톤 텍스처를 제품 전면 적용해 특유의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

가로 18cm의 초소형 크기로 공간 활용에 뛰어나며 전면 디스플레이 컬러는 라벤더, 오프 화이트, 피치 3가지 포인트 컬러 중 선택할 수 있다.

제품의 관리 및 사용 편의성을 더욱 높인 것도 특징이다. 취수 코크 형상을 변경해 취수 시 물 튀김 현상을 최소화했으며 두 개의 필터를 동시에 체결하는 원터치 방식으로 내부구조를 변경해 필터 교체 과정이 더욱 간편해지고 안전성도 강화했다. /김승호 기자

조영탁 “모든 기업, 위기를 기회로 삼는 계기 바라”

(휴넷 대표)

‘포사이트 코리아’ 출범

AI 등 5개 트랙, 30개 세션 ‘첫 선’

휴넷이 사업계획 수립시 기업들이 참고하고 최고경영자(CEO) 등에게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한 포럼 ‘포사이트 코리아(FORESIGHT KOREA)’를 새롭게 출범했다.

기업 의사결정권자들이 사업 전략 수립시 마주하는 다양한 고민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실현 가능한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조영탁 휴넷 대표는 16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휴넷 CEO 포럼 포사이트 코리아 2025’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휴넷은 16일 오전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휴넷 CEO 포럼 포사이트 코리아 2025’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조영탁 휴넷 대표가 질문에 답하고 있다. /휴넷

라의 경우 평일 매일 아침에만 250개 정도의 포럼이 있다고 한다. ‘포사이트 코리아’는 기업의 차년도 사업계획 수

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제로 매년 9~10월에 열 계획”이라며 “처음 선보이는 올해의 경우 ▲국내외 경제 환경 변화 불확실성 시대 사업 전략 ▲불황 극복을 위한 영업 및 마케팅 전략 ▲생산성 향상 및 핵심 인재 확보 방안 ▲AI를 비롯한 기술 트렌드까지 5개 트랙에 걸쳐 총 30개의 세션의 준비했다. 이를 통해 내년을 종합적으로 전망하고 사업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자는 포럼을 시작한 취지이자 다른 포럼들과의 차별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위기는 ‘위협’과 ‘기회’의 합성어라고도 한다. 지금은 위기 상황이다. 그러나 위기에 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다만 위기에

소수의 기업만 더 잘 되고 다수의 기업은 힘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포사이트 코리아’를 통해 대한민국 모든 기업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포사이트 코리아 2025’ 기조강연자로 나선 서울대 경영대학 송재용 교수는 내년 사업전략 수립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패러다임으로 ▲AI 혁명 ▲국내외 경제 저성장 기조 고착화와 주요국 경기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와 글로벌 공급망 대전환을 꼽았다.

송 교수는 “여러 국가의 전쟁, 미국 대선, 글로벌 경기 침체 등 국내외 경제 환경에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기업은 사업전략 시 예측되는 외부 환경에 따른 복수의 시나리오와 대응 전략을 미리 수립해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

반려동물을 위한 헬스케어 2

2024 제약 · 바이오 포럼

2024. 10. 23 (수) 오후 2시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 행사명 : 2024제약&바이오포럼
 - 일시 : 2024년 10월 23일 오후 2~5시
 - 장소 :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3층)
 - 주제 : 반려동물을 위한 헬스케어
 - 강연 : 김원일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장(기조강연)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이사
 최진식 그라스메디 대표이사
 이진환 지엔티파마 박사
 경현태 아우라케어 대표이사
 유성지 애니멀 프리 이니셔티브 대표
 임운지 VIP동물의료센터 암센터원장
 - 주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의 : 2024 제약 · 바이오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산업부 “수출 확대 위해 소부장 등 공급망 안정화 선행돼야”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안덕근 장관 “중간재 수입하는 구조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매우 취약”
요소 수입 차액 보조 등 안정화 지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우리의 경제 버팀목인 수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산업의 기반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핵심 광물 등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 합동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중동 분쟁 격화, 미중 갈등 등으로 인해 날로 높아져 가는 무역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공급망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과 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난해 12월 두 차례의 수급불안이 발생했던 차량용 요소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내년부터 중국 이외의 제3국에서 요소 수입을 위한 장기계약시 단가 차액

의 50%를 보조하기로 했다. 차량용 요소의 근본적 수급안정을 위해 공공비축의 대폭 확대, 국내생산 지원 등의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내년 1분기까지 확

정·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공급망안정화 앵커기업인 선도사업자 선정을 추진, 1차로 9개 부처에서 총 84개의 기업을 선정했다. 부처별로 수시로 선도사업자를 추가 선정해 5조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 기금을 적시에 지원할 예정이다. 공급망기금은 대출·보조 이외에도, 1조원 규모의 공급망 분야 특화 사모펀드를 조성 중이며, 내년에는 10조원 규모로 기금을 확대해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경제는 중간재를 주로 수입하는 구조로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매우 취약하다”며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필수인 흑연·무수불산과 같은 품목에 대해 국내 생산 경제성을 보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소와 같이 국민생활과 산업

활동에 필수적이거나, 국내 생산기반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도 수입 다변화와 함께, 국내 생산 방안을 병행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해외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핵심 광물 등은 공공 비축을 우선적으로 확대하고, 재자원화와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통해 자원을 순환 생산하는 경제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급망안정화위원회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설치된 공급망안정화 정책에 관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 지난 6월 27일 1차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됐다. 회의에서는 ▲주요 경제안보품목 공급망 리스크 점검결과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 ▲선도사업자 선정결과 및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계획 ▲공공비축 현황과 2025년 비축 관련 정부 예산(안) 등을 논의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산업부, 3분기 중 기업 현장애로 36건 해결

‘산업부 기업동향대응반’ 운영 통해 현장방문·간담회 등 총 627회 소통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3분기 ‘산업부 기동대(기업동향대응반)’ 운영을 통해 현장방문·간담회 등 총 627회 산업계와 소통하고, 90건의 현장 애로를 발굴, 이 가운데 36건을 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이후 현장방문·간담회·기업미팅 등을 통해 기업 애로해소를 지원하고, 새로운 정책과제 발굴 등을 위해 산업부 기동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난 3개월간 직급별로는 장·차관 70회, 실·국장 147회, 과장·실무자 410회 등 기업 현장을 방문해 산업 현장 목소리를 듣고 애로해소·구



정부서울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제개선 등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발굴된 애로·건의 사항은 총 90건(정책건의 30건, 규제개선 24건, 재정·세제 20건, 행정지원 16건)으로 관계기관 검토·협의를 통해 ‘K-조

선 초격차 비전 2030 수립’,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연장 발표’, ‘산업단지 자동차종합수리업 입주 허용’,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전략 마련’ 등 3분기 중 총 36건의 현장 애로를 해소했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우리기업들이 인공지능·로봇 등 미래 신산업에 과감히 도전하고 산업 전반에 걸친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규제·애로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장·차관부터 실무자까지 현장을 직접 찾아 어려움을 호소하는 우리기업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즉시 행동할 수 있는 산업부가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농식품부, ‘디지털육종’ 연구개발 박차

송미령 장관, ‘국제종자박람회’ 참석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세계종자(씨앗)시장 공략을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R&D)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16일 전북 김제에서 열린 ‘2024 국제종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기후변화 등으로 종자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계 종자산업 시장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운을 폈다.

또 “이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과 산업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송 장관은 “정부가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육종’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R&D)을 지속하고,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종자가공처리센터 등 구축을 통해 우리나라 종자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8회째를 맞은 국제종자박람회는

농식품부, 전북도, 김제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국내 유일의 종자 분야 산업박람회다. 우리 육종가들이 개발한 품종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종자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한편, 이날 국립종자원은 ‘2024년 제20회 대한민국우수품종상’ 대통령상에 ㈜시드피아의 벼 ‘골든퀸3호’를 선정했다. 또 국무총리상에 ㈜농우바이오의 고추 ‘엔더블유골든’과 배추 ‘겨울왕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에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포인세티아 ‘플레임’ 등 5점을 선정했다.

벼 ‘골든퀸3호’는 민간 최초로 개발한 향이 나는 품종으로서 상업화에 성공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배추 ‘겨울왕국’은 월동 조생배추의 시장점유율 66%를 차지하는 품종으로 농가 및 유통상인의 만족도가 높은 품종으로 인정받았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농식품부, 김장철 맞아 배추·무 등 비축물량 쏠다

김장 재료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
농수산물 수급 전망·대응 등 논의

정부가 김장철을 맞아 품목별 비상수급대책 마련에 나선다. 비상 상황이 발생할 시 계약재배·비축물량 등 정부가 용물량을 활용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오후 박범수 차관 주재로 김장 재료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김장에 사용되는 농수산물의 수급 전망 및 대응계획, 기관별 대책 등을 논의했다.

배추·무의 경우, 이달 하순부터 출하 지역 늘어나고 다음 달부터는 가을배추·무가 본격적으로 출하돼 김장철 공급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기상 여건 등으로 일시적 공급량 불균형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계약재배 물량 및 정부 비축물량을 활용해 출하량을 조절할 계획이다.

고춧가루·미늘·양파·대파·쪽파·생강



국내 한 대형마트에 무·배추 상품이 진열돼 있다. /뉴시스

등 양념채소류는 공급 여건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했다. 쪽파 가격이 다소 높게 형성되고 있으나, 추산지인 충남 홍성·아산 지역 생육이 회복되고 있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배는 추석 이후 지속된 폭염과 9월 하순 집중호우로 햇볕 데임 및 열과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생산량은 평년 수준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장철에는 갈아서 사용하는 특성상 푸레 등

가공품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천일염·새우젓·멸치액젓 등 수산물도 공급 여력은 충분할 것으로 봤다.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한민국수산대전’ 개최를 통한 할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각 품목별로 수급상황 변동 등 비상 상황 발생에 대비해,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미리 마련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권익위, 댐 주변지역 지원금 부실집행 적발

207억 중 20% 넘는 42억 부실집행

댐 건설로 피해를 본 지역을 지원하고자 국가가 지급한 지원금이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주민들의 쌈짓돈처럼 사용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안동시, 제천시, 청주시, 춘천시, 진안군, 임실군, 단양군 등 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2년간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급한 지원금은 총 207억원이었고, 이 중 20%가 넘는 42억원을 해당 자치단체들이 부실하게 집행했다. 구체적으로는 ‘목적 외 사용’이 약 4억8000만원, ‘절차 위반’이 약 19억원, 그 외 부실한 회계처리 등이 약 18억원으로 확인됐다.

A지방자치단체는 이미 마을회관이 있음에도 마을회관용 부지 매입에 1억

2593만원을 지원했으나, 해당 부지는 매입 후 2년 넘게 방치되고 있었다. 또한, 건축물이 있어 주차장으로 사용이 어려운 토지에 1억원의 주차장 부지 매입 보조금을 사용하기도 했다.

B지방자치단체는 마을영농시설을 설치한다는 명목으로 1700만원을 지출했으나, 실제로는 외지인인 주민의 아들이 소유한 토지에 개인 거주시설을 설치했다가 적발됐다.

권익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사업 협의회 심의·승인을 받은 사업에만 지원금을 지출할 수 있는데도, 지원금을 먼저 집행하고 승인은 사후에 받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7개 지자체에 조사 결과를 통보해 목적 외로 사용한 사업비에 대한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세종=김대환 기자

복잡한 요리 '뚝딱'... 식품업계, 433억 弗 소스시장 '정조준'

〈올해 글로벌 소스시장 예상규모〉

팔도 소스 브랜드 '디오니소스'
저당·저칼로리 신제품 4종 선봬

삼양식품 불닭소스 라인업 확대
상반기 소스·조미 매출 222억 기록

CJ프레시웨이 작년 매출 31% ↑
CJ제일제당 튜브고추장 등 수출



삼양식품이 불닭소스를 1000억 브랜드로 키운다. 삼양식품 직원들이 다양한 불닭소스를 소개하고 있다. /삼양식품

식품업계가 국내외 소스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함에 따라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제품을 선보이고 수출 확대에 나서는 등 시장 공략에 나섰다.

국내 소스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고 고물가에 집밥 문화가 확산하면서 규모가 커지고 있다. 복잡한 레시피 없이 손쉽게 완성도 높은 맛을 낼 수 있는 소스 수요가 늘어난 것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국내 소스 시장 규모는 2019년 1조3700억원에서 2022년 2조3000억원, 지난해 3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성장했다.

동원푸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내놓은 소스 브랜드 '비비키킨'의 매출은 해마다 평균 170%씩 늘고 있다. 초기 30톤 수준에 불과했던 초반 월별 생산량도 현재 4배 이상 오른 120톤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회사 측은 최근의 헬시플레이어 트렌드에 발맞춰 저당·저칼로리 소스 시장을 공략한 점이 주효했다고 보고 있다. 비비키킨은 토마토케첩과 머스타드처럼 대중적인 제품부터 저칼로리 라인을 갖추는 한편 마니아층을 공략한 저당 돈가스·굴·마라 소스와 각종 샐러드 드레싱까지 구색을 넓혀왔다.

종합식품기업 팔도도 세분화된 소비자 수요에 대응하는 브랜드를 론칭, 제품 출시를 통해 브랜드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팔도는 이달 초 신규 소스 브랜드 '디오니소스'를 론칭하고 신제품 4종을 선보였다. 저당, 저칼로리, 식물성

개념의 건강 지향 소스 브랜드다.

삼양식품도 소스사업부문을 신사업으로 키우고 그 중에서도 불닭소스를 1000억 브랜드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액상스프만 따로 판매해 달라는 소비자들의 요청이 이어지자 지난 2018년 불닭소스를 정식으로 출시한 바 있다. 이후 까르보불닭소스, 핵불닭소스, 불닭마요 등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소스 및 조미소재의 매출은 222억원으로, 전년 동기(173억원) 대비 31.3% 증가했다.

급식·외식 사업장에서의 소스 이용

도 늘고 있다. 실제로 CJ프레시웨이의 지난해 소스 유통 매출은 전년 대비 31% 성장했다. 관련 매출은 외식 사업장과 단체 급식 경로에서 각각 31%, 42%씩 늘었다. 연간 판매량은 2만6000톤으로 하루 평균 71톤씩 팔렸다. 메뉴형 완제 소스, 프랜차이즈 전용 소스, 중식 소스(마라 소스, 굴 소스)의 판매 성과가 돋보였다.

국내를 넘어 해외 소비자 입맛에 맞춘 현지화 전략으로 소스 세계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021년 글로벌 한식으로 키울 후보군 6종에 K소스를 포함시키고 꾸준히 현지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비비고' 브랜드를 앞세워 60여개 국가에서 고추장, 된장, 쌈장 등 장류를 포함한 다양한 소스를 판매 중이다. 고추장의 경우 해외 소비자가 보다 쉽게 먹을 수 있도록 매운맛의 강도를 조절했고 미국에서는 디핑소스나 드리즐에 익숙한



디오니소스 4종 /팔도

현지 식문화를 반영해 튜브형 고추장, K-바비큐 드리즐 등을 선보였다.

동원그룹과 대상그룹도 소스를 글로벌 전략 제품으로 낙점하고 수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동원은 미국·호주·베트남·홍콩을 넘어 유럽과 일본 시장에까지 진출을 앞둔 상태이며 올해 200억 수출이 목표다. 대상은 걸쭉한 고추장과 쌈장을 서구식 식문화와 맞게 묽게 변형시키거나 용기를 튜브형으로 변경해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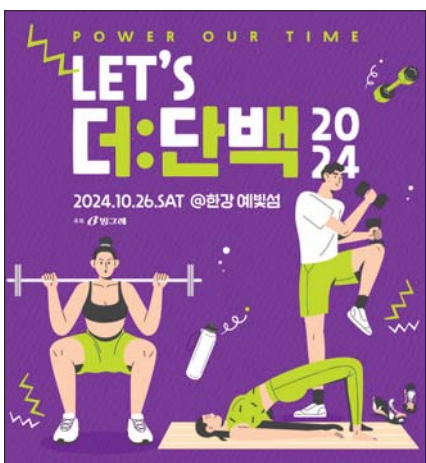
시장조사업체 프레시던스 리서치에 따르면 2021년 369억 달러였던 글로벌 소스 시장 규모는 올해 433억 달러를 돌파한 뒤 2030년에는 595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국내 소스류 수출액도 2020년 3억1876만 달러(약 4226억원)에서 지난해 3억7850만 달러(5020억원)로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의 경우 집밥족이 늘고 1인가구가 늘면서 쉽게 요리를 완성할 수 있는 소스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났다"며 "해외는 K-푸드 인기로 힘입어 한국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동시에 현지 식문화를 반영한 제품을 앞세워 시장 공략에 나섰다. 향후 소스 시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oul.co.kr

빙그레 "한강에서 인플루언서와 운동해요"

26일 '렛츠 더:단백' 시즌2 개최
배우 김무열 미니토크쇼 등 마련



소, 조각바디를 위한 스트레칭, 고강도 근력운동 등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과 함께 중간 휴식시간 전후로 개최되는 챌린지 타임과 럭키드로우, 경품행사 같은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된다.

빙그레는 이달 26일 서울 반포 한강공원 예빛섬에서 단백질 전문브랜드인 '더:단백'과 함께 하는 에너지 페스티벌, '렛츠 더:단백' 시즌2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작년에 이어 올해로 2회째를 맞는 '렛츠 더:단백' 행사는 탁 트인 한강에서 유명 운동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운동은 물론, 다양한 즐길 거리와 부대행사 및 각종 운동관련 이벤트가 가득한 페스티벌이다.

행사는 하루에 3부(1부: 9~11시 / 2부: 12~15시 / 3부: 16~18시)로 나누어 운영하며, 각 타임마다 다이어트 유산

특히 2부에는 더:단백 모델 배우 김무열과 함께하는 챌린지&미니토크쇼가 예정되어 있으며, 메인 프로그램 외에도 인형탈을 쓴 단백이를 잡는 게임과 프로그램, 다양한 운동 미션을 클리어 하는 스탬프 릴리, 포토존 등이 서브 프로그램으로 준비되어 행사 참여자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빙그레 '렛츠 더:단백' 행사는 만 19세 이상 성인만 참여가 가능하며, 인터파크에서만 선착순으로 예매를 진행한다. 티켓은 1인당 4매까지 구매가 가능하고, 행사 참여자 전원에게는 더:단백 전 제품 20종은 물론 운동가방, 운동소품(폼롤러, 밴드5종), 양말, 대형타월, 셀피스틱 등으로 구성된 스페셜 키트를 제공한다. /신원선 기자

하이트진로, 네이버 '멤버십 라운지' 개설

매월 등급별 최대 6000원 할인

하이트진로음료는 네이버 공식 브랜드 스토어 내 멤버십 가입 고객을 위한 전용 혜택과 이벤트를 제공하는 '멤버십 라운지'를 개설했다고 16일 밝혔다.

멤버십 라운지는 네이버에 입점한 브랜드가 개별로 고객을 관리하는 일종의 로열티 프로그램이다. 브랜드에서 직접 고객 정보를 파악하고 상품을 추천하는 것은 물론, 라운지 가입 고객에게 맞춤형 혜택이나 마케팅을 제공할 수 있다.

하이트진로음료 멤버십 라운지는 무료 가입 가능하며 좋아요 수, 구매 금액 등 달성 기준에 따라 ▲석수 ▲하이트제

로 ▲블랙보리 ▲진로토닉 순으로 등급을 받는다. 매월 등급별 최대 6000원의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1만원 이상 구매 시 3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생일 쿠폰도 멤버십 고객 한정으로 발급된다.

이밖에 라운지 회원 전용 커뮤니티인 '라운지 스토리'에서는 멤버십 회원을 위한 다양한 소식 및 이벤트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하이트진로음료는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 알림 받기에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5000원의 할인 쿠폰을 증정한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하이트진로음료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롯데온 세상 쇼핑 페스타' 완판 행진

23일까지 할인행사 진행

롯데쇼핑 e커머스플랫폼 '롯데온'이 연말을 앞두고 빠르게 오뎀한 대규모 할인행사에 소비자 반응이 뜨겁다.

롯데온은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는 '롯데온 세상 쇼핑 페스타'가 저장이 손쉬운 가성비 높은 상품을 중심으로 연일 완판 행진을 기록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연중 최대 할인 행사인 '롯데온 세상 쇼핑 페스타'는 지난 14일 오픈했다.

행사 첫날인 저녁 8시에는 조지훈 롯데 지이언츠 응원단장이 롯데온세상 특

집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이목을 끌었다. 이날 1시간 동안 진행된 라이브 방송에는 53만명이 동시 접속했다.조 단장은 이날 롯데칠성 논알콜 맥주 '클라우드 클리어' 소개했다. 해당 방송은 20분도 채 안 돼 준비한 6만캔이 전량 완판됐다.

'롯데리아 한우불고기버거세트 50% 할인권'은 지난 14일 오전 7시경 준비된 4만장이 이미 소진됐다.

온세상 쇼핑 페스타 행사를 위해 특별 제작된 '럭키박스' 5000개도 모두 완판돼 오는 21일 5000박스를 추가 판매할 계획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홈플러스 M.E.A.L. 솔루션 행사

홈플러스가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최신 먹거리 트렌드를 고려하여 최적의 상품을 제안하는 'M.E.A.L. 솔루션' 행사를 진행하고, 역대급 킹크랩 할인 행사도 함께 연다고 16일 밝혔다.

더불어, 냉장원료육을 사용한 양념육 신규 브랜드 '생생'을 론칭하고 판매에 나선다.

'M.E.A.L. 솔루션'은 단순히 시즌 상품을 제안하는 것을 넘어, 시시각각 변하는 먹거리 트렌드를 고려한 최적의 상품을 합리적으로 제공하는 '트렌드 제안' 방식의 행사다. /최빛나 기자

신세계백, 지역작가 창작 지원 'K아트 육성'

광주·부산·대구서 전시회

신세계백화점이 광주·부산·대구 지역에서 지역작가들의 전시를 펼치며 지역문화예술 후원을 이어간다고 16일 밝혔다. 광주·부산·대구 출신이거나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며 K아트 육성에 기여하는 것이다.

신세계는 1996년 제1회 광주신세계 미술제를 시작으로 다양한 지역작가 후원 활동을 통해 현재까지 200여명의 신진·지역작가들을 발굴하고 대중에게 소개해왔다. 올해는 오는 29일까지 작년 광주신세계미술제대상 수상자인 '구남컬렉티브' 작가의 개인전 '시간의 틈'을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선보이며 창작



센텀시티점 Space 14 series, 노인우 작가 작품전. /신세계백화점

활동 지원에 나선다.

구남컬렉티브는 구혜영·김영남 2인으로 구성된 창작 그룹으로 퍼포먼스를 기반으로 제작한 미디어 아트를 회화·조각 등과 함께 표현하는 아티스트다. /최빛나 기자

마약류 패취제 과다청구 심각 “DUR시스템, 기술적 한계 봉착”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2024 국정감사

서영석 의원, 초과사용 현황 분석
6개월간 펜타닐 8년치 처방사례도
“사용기간 미만영 등 사각지대 발생”

마약류인 펜타닐의 과다 사용이 국내에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류의 중복 처방을 점검할 수 없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의 한계가 문제로 지적됐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마약류인 펜타닐 패취제와 부프레노르핀 패취제를 과다 처방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가 수백, 수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밝혔다.

서영석 의원이 제출받은 ‘마약류 패취제 초과사용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펜타닐 패취제를 연간 122매(1매당 3일)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진자는 755명이었다. 2021년 294명, 2022년 246명, 2023년 189명이

(병·의원급 펜타닐 패취제 처방 현황)

| 구분 | 초과사용 수진자수 | 1인당 평균 처방매수 |
|-------|-----------|-------------|
| 2021년 | 294 | 215 |
| 2022년 | 246 | 200 |
| 2023년 | 189 | 188 |

단위: 명, 매 /서영석 의원실

있고, 1인당 평균 처방매수는 215매, 200매, 188매였다.

같은 기간, 또 다른 마약류 패취제인 부프레노르핀 패취제의 초과사용 수진자 수는 이보다 더 많았다. 연간 한도 52매(1매당 7일)를 초과하여 사용한 환자 수는 2021년 1590명, 2022년 1640명, 2023년 1452명 등 총 4893명에 달했다.

실제 청구 사례 중에서 과다청구된 사례도 몇몇 드러났다.

경북의 30대 남성의 경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1개 의원을 22일 내원하며 펜타닐을 440매 처방 받았다. 광주 광역시에 사는 30대 여성의 경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25개 의료기관을 65일 내원하며 펜타닐 패취제를 960

매 처방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한도 122매를 기준으로 보면 각각 3.6년과 7.9년간 사용할 분량을 처방받은 셈이다.

서 의원은 이렇게 마약류를 과다하게 처방받은 사례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의 기술적 한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시스템은 1회 투여량과 1회 투여횟수, 총투여일수만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마약류 패취제와 같이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현재 심평원 DUR의 마약류 패취제 중복처방 점검시스템은 사용기간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마약류 오남용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고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 DUR 시스템 개선과 점검 의무화,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등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롯데월드 “다크 문 월드” 놀러오세요

1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어드벤처에서 열린 호러 판타지 가을 시즌 축제 ‘다크 문 월드’에서 ‘스트리트 호러쇼: 더 마리오네트’ 연기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오는 11월 17일까지 호러 판타지 가을 시즌 축제 ‘다크 문 월드’를 진행한다. /손진영 기자 son@

롯데바이오, 5개 대학 산학협력 업무협약

(한국폴리텍대, 동양미래대 등)

바이오 분야 전문인재 양성

롯데바이오로직스는 한국폴리텍대학, 동양미래대학교, 유한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재능대학교 등 5개 대학과 ‘산학협력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롯데바이오로직스와 5개 대학은 ▲바이오 분야 맞춤형 교육훈련과정 공동개발 ▲바이오 직무 능력 향상 교육 제공 ▲롯데협약반 운영을 통한 취업기회 확대 등 다양한 활

동을 함께 추진한다. 또 산학협력을 통한 임직원 특강, 멘토링,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교류도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5개 대학은 바이오 업계에서 취업 기회를 확보하고,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우수한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등 상생의 틀을 마련하게 됐다.

아울러 롯데바이오로직스는 국내외 대학들과 지속 협력해 이론 지식과 실무에서 요구되는 기술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김석환 “적극적 M&A 통해 성장 고도화”

(한세에스24홀딩스 부회장)

한세에스24홀딩스 기업설명회
연매출 2.8조, 영업이익 1938억 전망
“내년 매출액 6% 이상 신장 목표”

의류 제조 및 유통, 온라인 서점 콘텐츠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한세에스24홀딩스 그룹이 16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2024 글로벌 기업설명회(IR)’를 개최하고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과 목표를 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적극적인 인수합병(M&A)을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신규사업 기회 발굴을 통해 성장을 고도화한다는 전략이다.

한세에스24그룹에 따르면 이번 기업설명회는 글로벌 패션 제조자개발생산(ODM) 기업 한세실업 생산기지인 베트남 호치민에서 진행됐다.

설명회에는 김석환 한세에스24홀딩스 부회장, 김익환 한세실업 부회장, 임동환 한세엠케이 대표, 이옥상 동아출판 대표, 최세라 에스24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세에스24그룹 2024 글로벌 기업설명회(IR)에서 김석환 한세에스24홀딩스 부회장이 그룹 M&A 전략과 목표 등을 발표하고 있다. /한세에스24그룹

김석환 한세에스24홀딩스 부회장은 기업 설명회를 통해 각 계열사별 사업 현황과 실적, 자본 활용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김 부회장은 “올해 한세에스24홀딩스의 매출은 2조8000억원, 영업이익은 1938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5년 수익성을 강화하고 매출을 확대해 외형 성장을 이루도록 지속적

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적극적인 인수합병의 의지도 밝혔다.

김 부회장은 “현재 한세에스24홀딩스는 자동차 부품 업체인 이레AMS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돼 인수합병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한세에스24그룹 내 성장동력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회장은 패션업계 트렌드를 전망하고 한세실업의 목표를 제시했다. 김 부회장은 “내년 미국이 기준 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류 소비 심리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5년에는 한세실업의 매출액 6% 이상 신장이 목표”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세실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한 친환경 사업 모델 구축을 위해 동서양 대륙에 걸쳐 글로벌 전략 자산을 계속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건국대동물병원, 美 VECCS 레벨2 인증

(수의응급중환자의학회)

미국 외 대학 최초 획득

건국대학교 동물병원(원장 윤현영)이 지난 1일 미국의 대학으로는 최초로 미국 수의응급중환자의학회(VECCS)로부터 동물병원 응급실 시설 레벨2 인증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레벨2 인증은 사실상 미국 외 지역의 동물병원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 인증이다.

국제수의응급중환자의학회(VECCS·Veterinary Emergency & Critical Care Society)는 동물병원에서 응급환자 및 중환자 치료 표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평가 및 인증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VECCS의 인증 평가는 운영 시간, 장비, 인력, 건축기준, 기반

시설, 물품, 의료 기록 및 자원 등을 토대로 진행되며, VECCS가 자체적으로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대해 총 3단계로 인증을 부여한다.

건국대 동물병원의 이번 레벨2 인증 획득은 대학 부속 동물병원으로서 미국 대학 외, 전 세계에서 최하다.

건국대학교 동물병원 한현정 교수는 “2022년 아시아 최초로 반려동물 헌혈센터를 개소한 데 이어 이번 VECCS 인증도 미국 외 대학 최초로 획득했다”라며 “평소 반려동물들에 대한 응급의료센터 시설 운영과 건국대학교 동물병원의 역량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i@

아모레퍼시픽, 롱테이크 헤어오일 리뉴얼

모발 손상 관리기능 강화

아모레퍼시픽은 감성향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롱테이크에서 ‘헤어오일(사진)’을 재단장해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워진 ‘헤어오일’은 브랜드가 독보적으로 구현한 우디향을 표현하고 있고, 모발 손상 관리 효능이 강화됐다.

롱테이크 헤어오일은 글로벌 조향사와 공동개발한 향수 전용 향료, 오크우드 업사이클링 원료 등을 활용해 최대 120시간까지 잔향이 유지된다는 것이



아모레퍼시픽 측의 설명이다.

또 해당 제품은 동백꽃잎의 카멜리아 펩타이드 성분, 모발 단백질의 핵심 성분인 18종의 아미노산 등을 함유하고 있어 모발 거칠기를 개선해 즉각적인 부드러움을 제공한다. 숲을 연출한 디자인과 제형이 잘 보이는 투명한 용기를 적용한 것도 특징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오는 30일까지 무신사 뷰티 채널에서 ‘롱테이크 헤어오일 기획전’을 함께 진행한다. /이청하 기자

대웅제약 “펙수클루 약효, 에소메프라졸 우위 확인”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한중 통합 분석결과 발표

대웅제약이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현지 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2024 유럽 최대 규모 소화기학회(UEGW 2024)’에서 자사가 개발한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펙수클루’에 대한 한

국·중국 통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의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환자 513명을 분석한 결과 대웅제약의 P-CAB 계열 치료제 ‘펙수클루’ 약효가 대조군 에소메프라졸보다 더 우수하게 나타났다.

펙수클루의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율’은 8주차에서 약 98.0%로, 펙수클루의 우수한 효과가 입증됐다. 또 ‘주증상 완화율’ 지표에서도 펙수클루는 에소메프라졸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상 개선을 보였다.

/이청하 기자

아이들형 - 신성록

10/18(금) 오전 11시, 2차 티켓오픈!

MUSICAL

SWING DAYS

암호명 A

2024.11.19 ~ 2025.02.09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현대글로벌비스, 전자폐기물 자원순환 앞장

현대글로벌비스는 E-순환거버넌스 및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와 '전자폐기물(E-Waste) 제로, 탄소중립 및 환경경영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왼쪽부터) 이우균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 문병섭 현대글로벌비스 안전환경경영실장, 이충우 E-순환거버넌스 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글로벌비스



신한은행, 학대피해아동쉼터 차량 지원

신한은행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굿네이버스, 학대피해아동쉼터 시설장들과 함께 '학대피해아동쉼터 차량지원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차량들은 아동들의 의료기관 방문, 등·하교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왼쪽 두번째)이 등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금융투자협회, '사랑의 도시락' 1000만원 후원

금융투자협회는 16일 이화여대 종합사회복지관에 식이치료를 받는 저소득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도시락' 후원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진익 금융투자협회 대외정책본부장(왼쪽)과 이영경 이화여대 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종근당고촌재단, 글로벌 인재 40명 장학증서 수여

종근당고촌재단은 10~15일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장학학생 4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종근당고촌재단 최정길 국장(왼쪽 두번째)과 하노이 약학대학 응우옌 하이 남 총장(왼쪽 세번째)이 장학생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종근당고촌재단



한신대-KB국민은행, 금융서비스 등 상호협력

한신대학교는 KB국민은행은 11일 경기캠퍼스 장공관에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각종 금융서비스(수수료 면제·우대금리) ▲대학발전기금 지원 ▲취업정보 제공 등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인재 한신대 부총장(왼쪽)과 조성창 KB국민은행 경기화성항남지역 본부장(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신대

CJ제일제당, '기업지식재산대상' 장관상

IP경영 통해 K-푸드 글로벌 확장 "식품·바이오 분야 리딩기업 공고히"

CJ제일제당은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기업지식재산대상' 시상식에서 기업부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지식산업협회가 주관하는 '기업지식재산대상'은 지식재산(IP) 경영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위한 전략을 공유·확산한 기업과 개인에게 수여되는 IP 분야 국내 최고 권위의 상이다.

CJ제일제당은 K-푸드의 글로벌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IP를 확보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한 점 등을 인정받아 장관상에 선정됐다.

CJ제일제당은 전 세계 120여 개국에서 보유한 2만건 이상의 특허 등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글로벌 식품·바이오 산업을 이끌고 있다. 식품 분야에서는 지난 5년간 국내 특허 출원 1위 기업(대학·공공기관 제외)



김주석 CJ제일제당 법무실장(오른쪽)과 김완기 특허청장이 2024 기업지식재산대상 수상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CJ제일제당

외)에 올랐으며, 국제 특허 출원은 7위를 기록해 한국 식품기업 중 유일하게 톱 10에 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CJ제일제당은 다양한 혁신 제품과 지속가능성을 높인 패키징 등을 선보이고 있다.

사료용 아미노산 등을 생산하는 바이오 분야에서는 지난 20년간 핵심 기술인 '코리네균 활용'과 관련해 전 세계에서 1200여 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이는 주요 글로벌 경쟁사

대비 3배가 넘는 수치다.

CJ제일제당은 2022년부터 IP를 통해 사업·R&D 전략을 제안하는 IP 액셀러레이션 활동을 이어오는 등 차별화된 IP 경영을 펼치고 있다. IP 액셀러레이션은 시장의 다양한 IP 데이터를 분석해 신규 사업을 위한 제품·기술 로드맵을 수립하거나 기존 사업의 포트폴리오 강화를 위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등의 활동이다.

이와 함께 CJ제일제당은 '부정경쟁방지법 제도 개선 위원회', '상표 분야 제도 개선 협의체' 등 국내 IP 분야 발전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 기구에도 활발히 참여해오고 있다.

김주석 CJ제일제당 법무실장은 "CJ제일제당의 차별화된 IP 경영 노력을 인정받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독보적 IP 경쟁력을 통해 식품·바이오 분야 글로벌 리딩 기업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상명대 정진우 교수 산자부 장관 표창

상명대학교는 정진우 휴먼지능 정보공학과 교수(사진)가 지난 15일 개최된 '2024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정진우 교수는 2006년부터 ITU-T SG13전문위원(Future Network 전문가)으로 활동 중이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과 협업해 5G, 6G, 메타버스 분야 표준제정에 메인 에디터로 참여하여 해당 산업 분야 활성화 및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 ihj@

SPC '해피쉐어' 캠페인

SPC는 희귀난치병 환아를 지원하기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해피쉐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희귀난치병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11월 30일까지 모금이 진행되며, 1만명 참여 달성 시 SPC그룹의 지원금 2000만원과 고객이 기부한 해피포인트가 전달된다. 기부된 금액은 희귀난치병 환아들의 의료비와 가족 생계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환경부, 천안시·신안군 등 '그린시티' 6곳 시상

고양시, 예천군, 김해시 등 선정

환경부는 오는 17일 충남 천안 서북구 천안시청에서 '제11회 그린시티 시상식'을 개최하며, 환경 관리에 모범을 보인 기초지자체 6곳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그린시티' 공모전은 환경관리가 우수한 기초지자체를 시상해 친환경 지방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 2004년부터 2년마다 실시해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이번 공모전 시상식에서는 천안시(충남)가 대통령상을, 신안군(전남)이 국무총리상을 각각 수상한다. 환경부 장관상에는 수성구

(대구), 고양시(경기), 예천군(경북), 김해시(경남) 등 4곳이 선정됐다.

대통령상을 받은 천안시는 천안형 순환경제 본보기(모델) 창출, 물 기반시설(인프라) 고도화 등 '2030 환경안전도시 천안' 비전 달성을 위해 19개 부서가 협업하고 민관 협력 추진단을 운영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무총리상을 받은 신안군은 갯벌, 육상 및 해양 식생의 탄소 흡수력을 극대화하고, 태양광 및 해상풍력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확보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밖에 ▲수성구의 멸종위기 야

생생물 2급 두꺼비 산란지 '망월지' 생태복원 ▲고양시의 경의선철도 유휴부지 녹지 조성 및 옥상 빗물 저금통을 활용한 물순환 시스템 운영 ▲예천군의 이동식 재활용 장터인 보물마차 및 환경심사를 통한 영농보조금제 운영 ▲김해시의 전국 최초 민간 장례식장 다화용기 사용 및 다화용기 세척시설 '온새미로'의 확산 등이 환경관리 우수지자체 모범 사업으로 평가받았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번에 환경관리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지자체 6곳이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신세계L&B 디자이너 사회진출 지원

신세계L&B가 서울디자인재단 주관 산학협력 프로젝트 '영디자이너+기업 브랜드 전시'를 통해 청년 디자이너들의 사회 진출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영디자이너+기업 브랜드 전시'는 국내외 기업과 청년 디자이너들이 협력해 신규 브랜드 및 제품을 개발하는 산학협력 프로젝트로, 올해 14개 팀이 참가한다. 프로젝트 결과물은 '2024 DDP 디자인론포제어'에서 브랜드 팝업전 형식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전시는 공간 컨셉트 키워드를 반영해 와인의 맛을 표현한 오브제와 패브릭을 배치해 감각적으로 구성된다. 특히 시각과 촉각을 활용해 새로운 와인 구매 경험을 제공, 방문객들에게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LG전자, 멕시코서 업사이클링 캠페인

'디자인 워크 멕시코' 참가

LG전자가 멕시코에서 현지 영제네레이션(YG) 세대와 함께 의류 업사이클링을 통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캠페인을 펼친다.

LG전자는 내달 3일까지 멕시코시티에서 열리는 '디자인 워크 멕시코'에 참가해 현지 사립대학인 이베로 아메리카대학교와 의류 업사이클링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업사이클링은 부산물, 폐자재와 같은 쓸모 없거나 버려지는 물건을 새롭게 디자인해 예술적·환경적 가치가 높은 물건으로 재탄생시키는 재활용 방식이다.

LG전자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멕시코 행사장과 이베로대학 캠퍼스, LG전자 멕시코법인 사무실 등 멕시코시티 곳곳에 헌옷 수거 박스를 설치했다. 수거한 의류는 깨끗하



LG전자는 내달 3일까지 멕시코시티에서 열리는 '디자인 워크 멕시코'에 참가해 멕시코 시티 곳곳에 헌옷 수거 박스를 설치하고 '의류 업사이클링 캠페인'을 펼친다. /LG전자

게 세탁 후 토트백과 인형 등 굿즈로 업사이클링해 현지 비영리 단체에 기부할 계획이라고 LG전자 측은 밝혔다.

LG전자 관계자는 "앞으로 YG 세대를 위한 고객 경험 공간을 조성하고, 대학교와의 협업을 확대하는 등 멕시코에서 캠페인을 꾸준히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혜민 기자 hyem@

에어부산 기내 특별 연주회 개최

에어부산이 지역사회와의 상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에어부산은 사내 동아리 '블루하모니'와 부산 문화예술단체 '나누리월드' 소속 장애인 오보이스트가 함께 기내 특별 연주회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초청한 연주자는 부산 문화예술단체 나누리월드 소속 발달 장애인 연주자 윤세호 오보이스트다. ▲카자뷰 ▲벨라 판타지아 등을 연주했다.

/박대성 기자 iunmids@

인사

◆남도일보 △이건상 뉴미디어국장(이사대우)

부음

- ▲김계분씨 별세, 이원욱씨 장모상 = 15일, 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 17호실, 발인 18일 오전 6시. 02-3410-3151
- ▲김장수씨 별세, 김성경(창녕군 문화예술과 과장)씨 부친상=16일, 창녕군 남지읍 남지요양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8일. 055-526-5788
- ▲정태화씨 별세, 정연수(김앤장변호사·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연옥(아진피앤피 사장)·숙경씨 부친상 = 16일, 영남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201호, 발인 18일 오전 8시. 053-620-4647

전남대병원, 상반기 350억 적자 '경영위기'... 재정지원 시급

지난해 12억 흑자서 적자 전환
의정갈등에 전공의 이탈 늘고
수술 대기일수 작년비 0.9일 ↑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 /전남대병원

의정 갈등 장기화 여파로 전남대병원이 올 상반기 350억 원대의 적자와 전공의 이탈, 수술 대기 일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15일 국회 교육위원회(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와 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는 전남국립대병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자본잠식과 병원의 고사위기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국립대병원 손실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남대병원의 올 상반기 손실 규모는 359억원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전남대병원은 11억8600여 만원 흑

자였으나 올 상반기에는 적자로 돌아섰다. 전국에서 손익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또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중 서울대병원(1627억원), 경북대병원(612억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경영 위기가 심각해 신속한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고 백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사직 전공의들이 사직 처리 지연으로 취업·개원 등에 손해를 입었다며 병원 측에 2억대 손해배상 소

송을 낸 것과 관련해 수련의 생활을 하다가 사직한 전공의는 16명으로 파악됐고 청구액 기준 2억4000만원이며, 전국 국립대병원 10곳 중 소송 참여 사직 전공의 수와 청구액 모두 가장 많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11명(1억6500만원), 강원대·충남대병원 각 8명(각 1억2000만원), 부산대병원 6명(9000만원) 순이었다. 사직 전공의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병원은 경북대병원이 유일하다.

소송 결과에 따라선 집단 소송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각 수련병원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수도 있다고 백 의원은 설명했다.

백 의원은 "의료대란 때문에 지방 의료 보루인 국립대병원이 누적 적자와 자본잠식 상태로 고사 위기다. 정부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긴급 지원을 해야 한다.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히면

서 "병원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제2, 제3의 집단소송으로 이어져 병원 경영은 더욱 악화할 것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병원의 관련 법적 분쟁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전국 국립대병원 10곳에서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전남대병원 본원의 '수술 대기 일수' 평균 18.34일이라고 밝혔다. 2019년에는 수술까지 20일 가장 기다려야 했으나 지난해 17.5일로 줄었다가 올해(1~6월) 들어서는 수술 대기 일수가 18.4일로 다시 늘었다.

전남대병원 본원의 '입원 대기 일수' 평균은 10.7일 풀이었다. 입원 대기 일수는 2019년 10.1일에서 지난해 12.9일로 증가했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산청군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교육

산청군이 동의보감촌과 큰들문화예술센터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를 위한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을 통한 재충전으로 민원 대응 역량 강화와 건강 증진 및 족욕 체험, 숲속 싱잉볼 명상, 꽃향차욕, 컬러테라피 및 온열 체험과 동의보감 한의원의 공진단 만들기, 배꼽양땀 체험 등 스트레스 관리에 필요한 시간을 진행했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대민 업무를 처리하는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수고에 감사하다"며 "어려움이 많겠지만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적이고 친절한 자세로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산청(경남)=이도식 기자

오늘부터 나흘간 '2024 광주식품대전'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서

품군을 한자리에서 선보인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호남권 최대 식품박람회인 '2024 광주식품대전'이 17일부터 20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연다.

광주식품대전은 참관객과 만남(B2C)을 비롯해 최고의 비즈니스 기회(B2B)를 통한 제품 홍보 및 판로 확대를 제공하는 식품 산업전시회이다.

전남대학교 푸드테크학과, 나주푸드업사이클링센터, 리하베스트, 오성시스템, 오엠오 등 대학과 지역 기업이 참여한 푸드테크 특별관(8곳)에서는 지역푸드테크 산업을 소개한다.

특히 올해 광주식품대전은 그린 엔에그리테크, 주류관광페스타, 국제차 문화전시회와 함께 열려 더욱 다양하고 풍성한 전시를 경험할 수 있다.

'푸드테크, 광주광역시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을 주제로 한 올해 광주식품대전에서는 300개사가 참여해 450개 부스를 통해 지역 농·수산물, 푸드테크, 음료&디저트, 건강·기능식품, 식품산업 기기 등 다양한 식

또 광주·대구 달빛동맹관, 고흥군 스마트팜사업소, 향도음식특별관, 보해양조&완도금일수협 홍보관, 제주특별관 등 각 지역 대표 식품군을 만날 수 있다.

/광주=양수영 기자



기보 김세현 대구경북지역본부장(왼쪽)과 동양대학교 노경철 산학협력단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보

기보, 경북 우수중소 추가지원 나서

동양대와 사업화 촉진 업무협약

기술보증기금이 동양대학교와 경북지역 우수 중소·벤처기업 추가 지원에 나섰다.

기보는 동양대 산학협력단과 경북 영주시 소재 동양대에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상호 유기

적인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해 경북지역의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고, 동양대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 촉진과 지역 우수기술기업에 실효성 있는 기술금융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동양대는 보유 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기보에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 bada@

신안군,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농장 오픈

스마트 육묘장 등 3개소

망고를 재배하는 임대농장은 시설 규모 8,118㎡ 12연동 스마트 온실로 5명의 청년농업인들이 참여해 올해 첫 수확을 올리는 성과를 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수확이 예상되며 연간 약 5톤의 애플망고를 생산할 계획이다.

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이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개소식을 가지고 본격 청년농업인 육성에 나섰다.

이번에 문을 연 임대농장 3개소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4,278백만 원이 투입돼 환경 설정에 따라 시설환경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복합환경제어시스템과 전기난방 설비 및 재배작물과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실 등을 갖춘 내재해형 스마트 온실로 지어졌다.

기후 변화 대응 전략으로 아열대 작물인 커피, 바나나, 망고 재배와 아열대 작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품목의 우량묘를 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 육묘장 등 총 3개소가 문을 열었다.

커피와 바나나를 재배하는 임대농장은 5,494㎡ 규모로 4명의 청년농업인들이 연간 약 18톤의 바나나를 생산 판매해 1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신안(전남)=황세훈 기자 pinksea97@

부산시, 청년 고용우수기업 3곳 선정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 고용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한 지역 기업 3개사를 '2024년 청년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시는 올해 처음으로 청결 기업 100개사 가운데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대해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했으며 지난 8월 공모를

통해 후보 기업 31개사 중 총 3단계 심사를 거쳐, ▲태광후지킨 ▲조광요턴 ▲바이네스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청년 고용우수기업에는 ▲인증서와 인증 환관 수여 ▲좋은일터강화지원금 4000만원 지원 ▲신규 취득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의 체감도 높은 혜택이 제공된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양산시 노인맞춤돌봄사업 대상 확대

양산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대상자가 2024년 8월부터 지역연금 수급자 중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까지 확대 추진된다. 기존 대상자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다.

관내 민간 수행기관 3개소에서 144명의 생활지원사가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지역자원연계, 특화사업을 직접 또는 연계 제공한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양산(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부산 사상구 '1회용품 없는날' 캠페인

부산사상구는 환경보호와 자원 절약이라는 목표 달성에 공직자가 먼저 실천해 주민들의 동참을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청사내 '1회용품 없는(0:제로) 날'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매월 10일에 열리며 직원들뿐 아니라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점심 시간에 청사 1층 로비에서 진행했다. 1회용품 안 쓰기 동참 서명받기 등 캠페인을 통해 청사내 직원과 방문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으로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뉴스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정재호 대사 "시진핑, 내년 APEC 참석 가능성...북중 미묘 징후" /사진 뉴시스
▲인도 삼성전자 공장 파업 종료...한 달여 만에 합의

▲러시아 외무차관 "남한, 도발 멈춰라...北 침략당하면 군사원조"
▲싱가포르행 인도여객기 이륙후 폭파 위협받아...전투기 출격 대응



▲위기의 '보잉', 최대 47조원 자금 조달 추진
▲트럼프, 수소차에 거부감...“특별히 위험, 폭발시 끝장” /사진 뉴시스



식품업계 433억 달러 소스시장 '정조준' L1



Life

CJ제일제당 기업지식재산대상 장관상 L4



디자인산업에 5년간 1723억 투입... '한국판 이케아' 키운다

서울시, 디자인 산업 계획 발표
디자이너 양성 전문 교육기관 운영
DDP·홍대·성수 디자인 거점 조성
납품 걱정 없는 '안심보험' 도입도

디자인산업 4대 핵심전략 과제

| | | | |
|--|---|---|---|
| 서울형 디자인스쿨 조성·운영 디자인교육, 판로개척, 네트워킹 원스톱 지원 | 디자인기업 안심보험도입 파손 또는 제품 납품 실패 시 제작비 최대 60%까지 보장 | 제조-디자인 기업융합 통한 상생성장 제조·기술 업체 연결 기업간 협업 지원 | 서울디자인위크(가칭) 확대 개최 세계 3대 디자인 산업박람회로 발전 자료/서울시 |
|--|---|---|---|

서울시가 아름다운 디자인을 내세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이케아'나 '무인양품'과 같은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디자인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역량 있는 디자이너를 양성하는 전문 교육 기관을 운영한다.

서울시는 16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자인 산업 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디자인 산업 기반 구축 ▲디자인 기업 자생력 강화 ▲기업 간 융합 ▲서울 디자인 국제적 확산을 골자로

한다. 시는 향후 5년간 1723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디자인 기업을 키워 4089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내고, 2346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우선 시는 서울 도심에 디자이너와 기업을 위한 온·오프라인 클러스터를 조성키로 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홍대, 성수에 디자인 기업 지원 거점을 만들어 투자 유치용 전시·판매, 디자인 기업 육성, 인지도 확보의 장으로 활용

할 예정이다. DDP와 홍대 서울디자인 창업센터를 활성화하고, 성수에는 2026년까지 980㎡ 규모의 팝업스토어를 마련해 디자인 제품 상설 전시 및 비즈니스 상담 창구로 이용한다. 이와 함께 온라인 디자인 플랫폼 '서울 D 투게더(가칭)'를 구축해 디자인 교육, 판로 개척, 네트워킹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최고급 강사진이 포진한 온·오프라인 디자인 전문 교육 플랫폼 '서울형 디자인

스쿨'도 가동한다. 세계적인 디자이너를 비롯한 국내외 교수진,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 수준 높은 강의를 선보인다.

디자인 기업들이 납품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안심보험'도 도입한다. 시제품 개발 중 발생한 파손 및 도난이나 디자인 제품 납품 실패 시 제작비의 최대 60%까지 보장하는 상품이다. 예컨대 5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제작할 때 3%에 해당하는 150만원(본인 105만원+시 45만원)을 보험료로 내면 만일의 사태 발생 시 60%에 달하는 3000만원까지 보장해준다.

보험료의 30%를 서울시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5년간 1500개 업체를 지원한다. 현재 신한EZ화재보험과 상품을 공동 개발 중이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출시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스타트업부터 전문 기업까지 단계별

지원을 통해 우수한 새싹 기업을 육성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사업화를 돕는다. 창업 초기 기업에는 비즈니스 모델과 시제품 개발을, 창업 3년 이상 도약 기업에는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투자 유치·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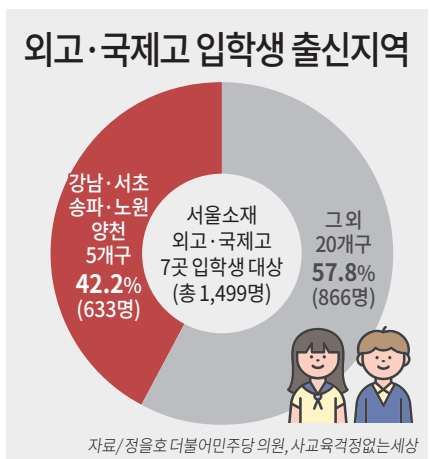
비용 문제로 디자인 개발을 망설이는 기업들에게는 제조·기술 업체를 연결해 상생 기회를 제공한다. 시는 컨소시엄을 구성한 기업들에 협업 촉진을 위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디자인 개발비, 해외 판로 개척, 사업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전시 중심의 행사였던 '서울디자인위크'를 글로벌 비즈니스 장으로 개편해 세계 3대 디자인 산업 박람회로 발전시킨다는 복안이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 외고·국제고 입학, '부의 대물림' 여전

서울 소재 외고·국제고 입학생 42% 노원·강남 등 사교육과열지구 출신
부모 배경·경제력 따라 쏠림현상 발생



서울 소재 7개 외고·국제고 입학생 10명 중 4명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노원구, 양천구 등 5개 사교육과열지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학년도 7개고 입학생은 1484명으로, 이중 39.8%에 해당하는 591명이, 2024학년도는 전체 입학생 1499명 중 633명(42.2%)이 5개구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율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서울 소재 외고·국제고 입학에 따른 교육불평등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서울

외고(6개)·국제고(1개)의 2023·2024학년도 입학생 출신 중학교를 분석한 결과다.

구별로 살펴보면, 노원구가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 각각 171명, 195명

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남구(135명, 144명) ▲송파구(117명, 118명) ▲양천구(100명, 110명) ▲서초구(68명, 66명) 순으로 많았다.

이런 쏠림현상은 고교서열화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경제력과 거주지역이라는 부모의 배경이 대물림되는 현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율호 의원은 "자사고와 외고·국제고의 입학 과정에서도 부모 경제력과 거주지역에 따라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됐다"라며 "교육 불평등을 야기하는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고 어느 고교에 가더라도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lhj@

용인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공모 '최우수'

6년 연속 선정... 국비 10.5억 확보
처인구 261곳에 태양광 설치 지원

용인특례시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아 국비 10억 5329만원을 확보했다.

올해부터는 평가 등급을 A~E 등급으로 나눠 국비를 차등 지원하는데 시는 최우수 등급(A)을 받아 국비를 최대 10억 5329만 원에 달하는 공모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시가 최우수 등급을 받고 6년 연속 공모에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5년간 사업 추진 실적이 좋은 데다 시민 만족

도 향상을 위해 사후 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10억 5329만 원을 포함해 총 30억 원을 들여 처인구 포곡읍·양지면·동부동 일원 주택과 일반건물 등 261곳에 태양광 발전 설비 980kW와 지열 발전 설비 542.5kW, 태양열 집열판 76㎡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는 공모에 참여한 2020년 이후 최대 규모다.

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가동하면 연간 1845MWh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데 이는 화석에너지 371toe(석유환산톤)를 대체할 수 있는 양이다.

/용인(경기)=유진채 기자 yujin@

서울 신림5구역, 3900세대 주거단지 조성

신통기획 확정... 최고34층 대단지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최고 34층, 3900세대 규모의 주거 단지가 조성된다.

서울시는 신림5구역(관악구 신림동 412번지 일대) 재개발 사업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주변 다양한 장소로 편리하게 연결되는 단지 구축 ▲지형

차이를 활용한 입체적 공간 디자인 ▲지역과 소통하는 열린 단지 조성 ▲삼성산과 어우러진 스카이라인과 도립천에서 열린 경관 창출을 골자로 한다.

우선 시는 대상지 주변 서원역, 삼성산, 도립천 등 다양한 곳으로 이어지는 길을 조성토록 했다. 대상지 경계부 순환 도로와 주변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정비하고, 공공 보행 통로를 만들어 이

동 편의를 제고했다.

아울러 시는 기존 급경사 지형의 특성을 활용한 입체적 주거 단지를 계획했다. 지형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단과단 사이 공간을 커뮤니티시설,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테라스하우스 등으로 활용,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대상지 북쪽 일대를 도립천과 연계해 주거 복합 용지로 계획하고, 생활 공유 가로를 만들어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했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42 | 해질 / 17:52

10월 17일 (木)
음력 : 9월 15일

수도권 날씨
14 ~ 26°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노벨문학상' 한강 책, 엿새 만에 100만부 팔렸다 /사진 뉴시스
▲창단 40주년 앞둔 서울시오페라단, 11월 첫 '라보엠' 공연

▲대학야구에 ABS 적용...대학야구연맹, 스포츠투아이와 업무협약
▲무릎 다친 삼성 구자욱, 일본행...“가을야구 출전 위해 전념”



▲'과학·예술 융복합' 대전과학예술비엔날레 25일 개막
▲FC서울서 '우승' 원하는 링가드 "팀에 성취감 가져다 주고파" /사진 뉴시스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SAMSUNG



직접 닦지 않아도 알아서 깨끗하게
BESPOKE로 인^덕션 식^세기 바꿈



AI 맞춤 세척으로 깨끗하게



알아서 아껴주는 AI 절약 모드

BESPOKE 주방가전
인식 바꿈 특별전
(6/1~9/30)



세상에 없던
AI 라이프.

BESPOKE AI 인^덕션 | AI 식기세척기



*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이미지 * 본 특별전은 행사매장 내 행사무대형에 한하며, 예고없이 변경 및 중단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삼성닷컴 참조 또는 가까운 삼성스토어에 문의 AI 맞춤 세척 * 국내 식기세척기 최초 한국표준협회(KSA)의 AI+ 인증 획득 * AI 맞춤은 코스 설정을 통해 가능 AI 절약 모드 * 누진 단계에 따른 에너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 환경에 따라 스마트 미터기 별도 구매 필요 * AI 맞춤 코스로 월 30회 사용 시 20% 에너지 절감은 자사 실험 결과로 실 사용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AI 절약 모드 20% 절감 시험 조건 * 시험 조건 : 효율기자재운용규정 기준 오염물 대기 23°C 수온 15°C/시험 코스 : AI 맞춤 / 시험 방법 : AI 절약모드 커칭 유/무 1회 행정 완료 후 소비전력량 측정 비교 / 시험 모델 : 당사 DW60BB85UAP / 시험 기관 : Intertek * 설정조건 : AI 절약모드는 SmartThings에서만 지원하며, SmartThings는 지원 환경 및 사용 방법에 일부 제한이 있음 / SmartThings Energy 서비스에서 AI 절약모드 할간 목표 사용량 설정을 최대 절약 모드로 선택하면 즉시 가동되며, 누진 단계/직접 설정 모드로 선택할 경우 각 모드에서 사용자가 설정한 조건에 따라 AI 절약모드의 가동시간과 에너지 절약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 * 기능지하 : AI 절약모드 사용시 세척 / 헹굼 온도를 낮춰 소비전력을 줄이며, 동일 세척력 유지를 위해 세척시간이 늘어날 수 있음